

朝鮮王朝時代의 都邑景觀體系研究(Ⅱ)：  
全州府 晉州牧, 公州牧을 中心으로

\*金漢培 · \*\*朴贊龍

\*大邱大學校 造景學科 教授

\*\*嶺南大學校 造景學科 教授

A Study on the Systems of the Korean Major Local Townscapes  
During the Age of Yi Dynasty : Jeonju Bu, Jinju Mok  
and Gongju Mok as Case Study Areas

\*Kim, Han-Bai, \*\*Park, Chan-Yong

\*Prof.,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aegu Univ.

\*\*Prof.,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Yeungnam Univ.

= A B S T R A C T =

The townscapes of "Bu" and "Mok" in the Yi Dynasty, Showing the typical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Korean pre-industrial city, were influenced by the two major socio-cultural norms, One of Which is the "Pung su theory" a traditional religious system on human settlements, the other is the "Churyegogong system"; a principle of the traditional oriental city planning. The former exerted main influences on the location of towns, its external Boundaries of domain and its direction, by natural topographic features in macro perspective, and the latter on the inner parts of townscapes, i. e., the landscape system of 'center', 'boundary', 'direction', and 'domain', as representations of administrative and Socio-cultural structures of that era, in micro perspective compared with the former.

The systems of Korean old townscap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hg brief paradigm, with general and case studies. And the constituents of the paradigm, such as center, boundary, direction and domain, are inferred to reinforce the "sense of place" in townscapes, with their 'physical appearance', 'meaning', and 'social activities'.

\* 1987년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임.

1987년 9월14일 접수된 논문임.

### • Systems of Townscape

1) representatives of 'Center'	* Administrative elements (located at 'Hyeol' and 'Myeong-Dang' in 'pung-su' topography)
2) representatives of 'Boundary'	* Internal markers of Boundary ; Military elements * Intermediate markers of Boundary ; Religious elements * External markers of Boundary ; Natural elements in 'pung-su' concept
3) representatives of 'Direction'	* Internal Markers of Direction ; street pattern with its direction and width * Intermediate markers of Direction ; Gates of city wall at each direction * External markers of Direction ; Natural elements in 'pung-su', at each direction
4) representatives of 'Domain'	* Internal Domain ; Government B.D. districts * Intermediate Domain ; Residential districts inside the city wall * External Domain ; Residential districts and market places outside the city wall

### 1. 序

#### 1) 研究의 目的 및 方法

本研究는 前篇(논문(I))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近·現代에 있어서의 都邑景觀變遷過程에 대한 一連의 研究中, 前篇이 主로 연구의 背景과 方法論, 概念體系를 다룬데 後續하여 朝鮮王朝時代를 그 時間의 범위로 다룬 都邑景觀研究篇이다.

現代韓國의 都市景觀이 日帝植民地時代로부터 시작되는 他律的近代化과정의 變形的產物이라고 볼 때, 現時點에서 입수 가능한 研究資料등의 여건상 朝鮮王朝時代의 都邑景觀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最近距離의 傳統韓國都市景觀의 原型으로서,前述한 一連의 研究에 있어서의 出發點이자 비교의 基準으로서의 重要性을 가진다.

本研究의 構成은 크게 두 부분 즉, 朝鮮王朝 都邑景觀體系의 原型을 國都와 地方小邑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리하는 主로 文獻研究 위주의 一般論과, 都邑景觀體系의 構體的, 實證的 解釋을 위한 문헌조사와 현지답사를 겸하는 事例研究로 이루어진다. 研究方法上의 概念體系는 앞 논문에서 詳述하였으나 다시 한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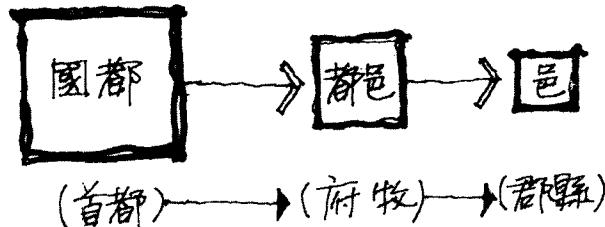
요약하자면, 주로 統治構造에 따르는 社會文化的特性과 景觀體系와의 相互關係를 環境認知(Environmental Cognition)의 立場에서 보려 하였으며, 따라서 都市景觀認知上의 原型的(Archetypal)構成要素를 '中心(Center)', '境界(Boundary)', '方向(Direction)', '領域(Domain)'의 四大要素로 보고, 이들 各 요소들의 都邑景觀內에서의 具體的表象體系(Representational system)를 이들 각개 요소와 結付된 景觀的意味(Meaning) 및 行爲(Activity)와 더불어 綜合的으로 考察하는 方式을 취하려 한다.

#### 2) 朝鮮王朝 地域統治體制와 都邑의 都市的位階

李朝의 地方行政區域은 멀리 新羅 神文王7년(687년)頃에 확립된 9州 5小京 117郡 293縣제도에 연원을 둔다. 이것이 고려시대에는 顯宗9년(1018년)에 이르러 전국이 4京 4都護府 8牧 56州郡 28鎮 20縣으로 바뀌었다가 조선조로 이어진다. 조선조 지방행정제도는 대체로 1413년 (太宗13년)의 개혁이 있은 뒤로는 큰 변동은 없었고 법규는 經國大典의 기록이 요강을 이루는데 全國을 八道로 나누고 그 밑에 4府, 20牧, 4大都護府, 43都護府, 82郡, 175縣을 둔 형태로, 이러한 都市 및

地域의 位階는 주로 그 지방의 人口數, 歷史的, 政治的, 軍事的 중요성과 여기에 배치되는 官員의 品階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관례였다. (최 창조: 1984, p. 260.) 이중, 府(留守府포함), 牧, 大都護府는 한양주변의 要鎮 및 역사적 지방도시인데, 留守府는 중앙이 직할하는 邑으로서 수도의 방위거점, 府는 조선시대以前의 首都, 牧은 歷史的인 行政中心, 大都護府는 전국적인 시점에서 설치된 防衛中心, 都護府는 地方防衛의 거점이다. 이밖에 변경지방은 크게 구분하여 郡을 두고, 중남부지방의 일찍 개발된 곳을 세분하여 縣을 두었다.

이조후기의 地方行政官僚의 官職과 序列를 보면 수도인 漢城府는 京官職인 正三品 判尹을 두었고, 4留守府는 역시 경관직인 從2품 留守, 各道의 監營이 있는府와 牧에는 각각 觀察使를 두었는데 보통 이 관찰사가 邑이 長 즉, 府尹(從2品)과 牧使(正3品)를 겸하는 것이 상례였으며, 일반적으로 牧과 大都護府(大都護府使)는 同級의 格으로 보았고 都護府에는 都護府使, 郡에는 郡守, 縣에는 縣令이 지방행정조직의 長을 맡아 王權을 대행하였는데 이중 적어도 대도호부 이상은 정치적 기능으로 보아 도시적 성격이 커졌다(유 시윤: 1984, pp. 135-136; 강대현; 1975, pp. 72-73).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방도시의 長 즉, 守令은 軍事職도 겸하여 그의 보좌기관인 六房의 吏屬들에 의해 사무를 보좌받는다. 이들을 衙前이라 하며, 이 외에 고려시대의 鄉吏제도를 이어받은 鄉廳과 그의 長인 座首의 사문을 받기도 한다. 이중 道監營의 守令인 觀察使는 그廳舍소재지의 長인 府尹, 牧使를 겸하는 것은前述한 바와 같으나, 실제로 그 지방도시의 자체 행정 업무는 대부분 判官이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경상남도; 단기4291, pp. 42-44) 각 序列의 地方都市는 그 명칭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았는데 태종 13년, 府와 牧이외의 고을에는 「州」 字 사용을 금지하고, 大都護府이하 郡, 縣들은 모두 “山”과 “川”的兩字로 대체케 하였으며 (손정목; 1973, p.71-11; 1974, pp. 71-72) 邑이라는 명칭은 首都 漢城以下 모든 地方都市들을 그 배후지인 村과 구별하여 통칭하는 보통명사로 일반적으로 首都를 都邑이라 하여 구분하였으나(유시윤, op. cit p.136), 본 논문에서 題材로 쓰는 “都邑”的用語는 수도를 제외한 보다 都市的인 邑 즉, 道廳舍소재지에 준하는 보다 格이 높은 府, 牧 정도의 地域 中心邑을 郡, 縣 청사소재지 정도의 下位의 邑과 구분하여 편의상 “都邑”이라 부르기로 하며, 이 용어는 유사한 성격의 연구 문헌에서도 무리없이 쓰이고 있으므로 보편성이 있다고 보아도 되겠다. (손정목; 1973; 최명선; 1974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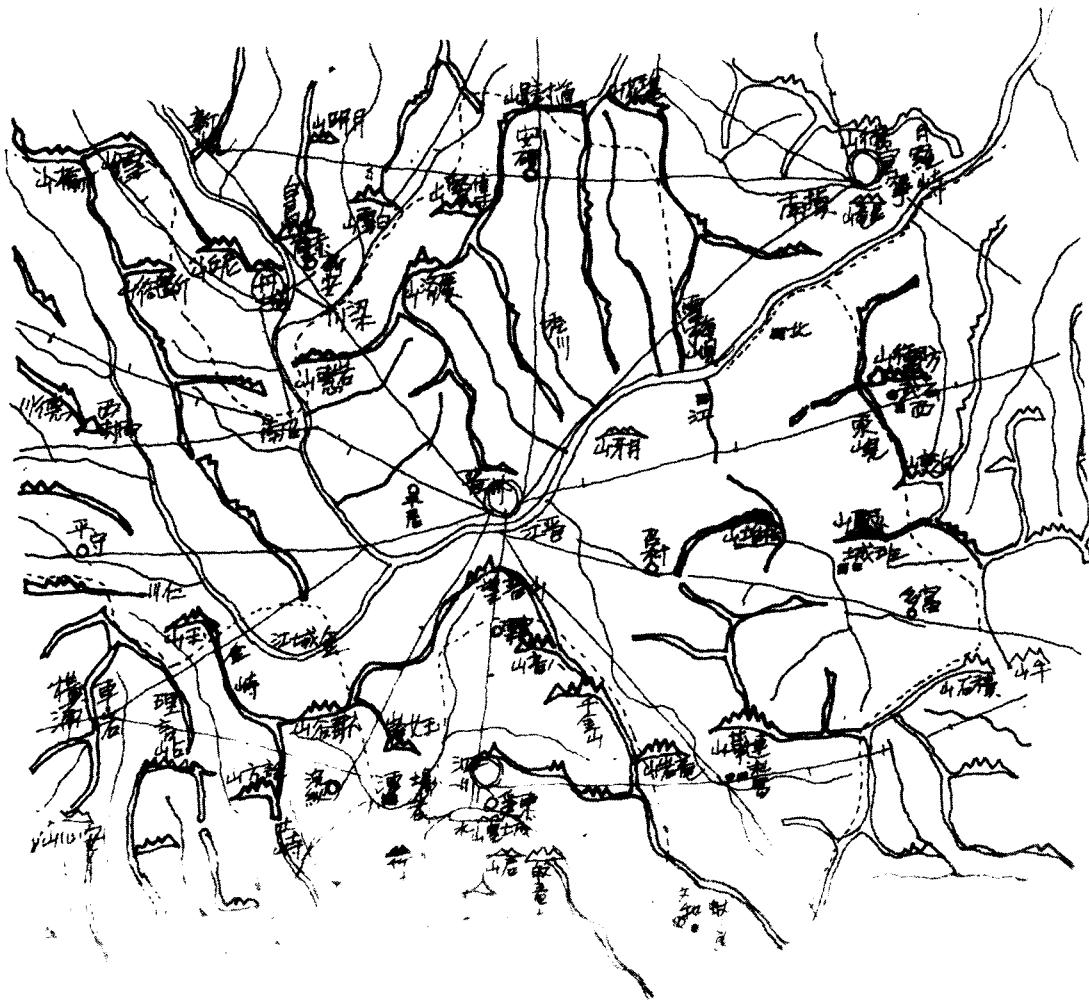
〈圖1〉 국도, 도읍, 지방소읍의 도시위계

앞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前產業都市(pre-industrial city)의 主기능은 統治行政과 軍事的防禦, 宗教活動과 商業等이듯이, 朝鮮王朝의 都邑들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前產業都市의 機能과 어느정도 일치하는 것은 물론 都邑住民 및 都邑基本施設들도 이러한 기능이 부합되는構成을 갖는다. 즉, 도읍의 주된 住民은 官衙當務者인 高級官僚와 軍校 및 中人인 衙前이 上層階級을 형성하였으며, 官奴와 기타 관청의 서비스계층의 常人 그리고 이의 가족, 친지들이 下層階級을 형성하였는데 이중에서도 常人과 奴婢의 비율은 대략 4:5정도로 奴婢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소유계급(地主級의 無官兩班들)은 그들이 의존하는 財力의 근거인 農村部에 보다 많이 거주하였고 都邑는 이들을 특별히 끌어당길 만한 매력은 없었던 것 같다.(손정목, 1977, pp. 104, 180) 이밖에 李朝時代에는 國教로 儒教를 崇尚한 까닭에 유교의 종교적 성격상, 유럽의 前產業都市에서와 같은 특별한 宗教職의 住民 및 宗教的 都市施設은 비교적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商人이나 工匠들은 성밖 가까이에 집단 거주를 하였으나 (Ibid, p.324) 이들도 準都邑주민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 2. 都邑景觀의 一般的 體系

앞논문에서 밝힌 바와같이 前產業都市의 景觀을 支配하는 2大 價値體系는 宗教的 價値體系와 社會的 價値體系로, 前者의 것은 주로 都市景觀의 기본구조에 宇宙와 神의 신비한 模型의 형태를 지니게 하였고 이러한 景觀은 그 시대의 上流階層 즉 王, 僧侶, 貴族들의 權威를 持續시키는 (즉 사회적 가치체계와 일치시킴으로써) 社會的手段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城郭(閉鎖)都市 (walled town)”라고 불리우는 이들 ‘전산업도시의 경관의 通文化的 (Cross Cultral)’인 일관된 성격은 방위용성곽으로 둘러싸인 圓形내지 方形의 형태에, 4方向을 강조한 直交狀의 도로와統治 또는 宗教用 中心施設의 配置를 통해 “中



〈圖2〉 진주목 근처의 도시체계-대동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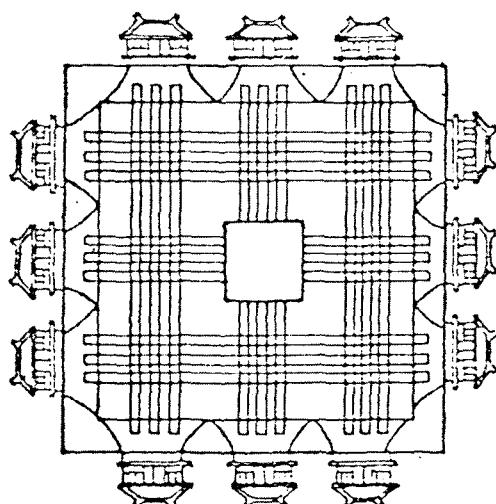
心” 또는 “上方”이 강조된 都市形態로, 封建李朝의 都邑의 基本形도 이러한 前產業都市景觀의 기본구조에서 크게 벗어 나지는 않는다.

### 1) 都邑景觀形成的社會·文化的要因

우리나라의 前產業都市들은 都市造成의 原理와 도시의 구체적 형태상 中國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아왔다고 할수있는데 이중 可視的이고도 直接的인 영향을 미친것은 크게 두가지의 制度的, 文化的 規範 즉, “周禮考工制(정확히 말하면 周禮冬官考工記의 匠人條에 기록된 都城制)”와 “風水說”인것으로 일반화되고 있다(이상구; 1984, 손정목; 1977 참조) 中國의 전통적 도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적용되었던 周禮

考工制의 내용은 크게 보아 주로 都城의 規模(匠人營國方九里旁三門) 道路의 配置와 幅員(國中九經九緯經涂九軌), 主要 公共施設과 土地利用의 配置(左廟右社, 面朝後市, 市朝一夫)의 基準을 정하고 있다. 즉, 首都의 계획은 九里四方의 크기로 하여 四方에 3개씩 門을 두고, 都城內에는 東西9, 南北9개의 도로를 설치, 도성의 中央에 宮闈을 두고 그 左側에는 宗廟를 그리고 右側에는 社稷을 세우며 궁궐의 前面에 朝庭을 위치케하고, 市場은 궁궐의 뒷쪽에 설치하되 그 크기를 一夫의 땅으로 한다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이상구; 1984, pp. 59-62) 이들의 내용은 封建制 中國統治體制의 空間的 反影과 함께 神聖한 宇宙의 象徵 또는 古代占星學의 空間的 表現의一面도 지닌다고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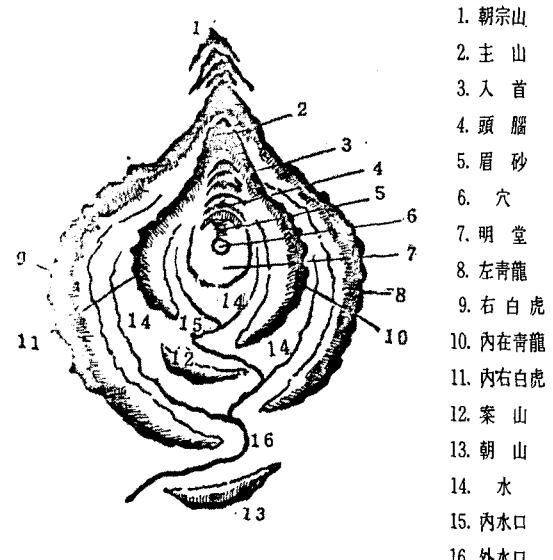
인다. 이러한 周禮의 원칙에 의해 형성된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는 漢의 長安城과 元, 明, 清代의 北京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一般的 도시구조는 다음과 같은 몇 단계의 설명으로 정리할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이들 도시의 경계인 城은 보통 内城과 外城 즉, 二重의 城과 廓으로 형성되어 있고, 内城안에서도 皇城과 官城이 도시의 중심부를 중첩된 閉鎖性으로 표현하며 이 폐쇄형境界는 주변의 濠로 더욱 강조된다. 둘째, 대륙적 平地의 입지여건상 이들 都城의 형태는 幾何學的 四角形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内部街路도 四方 各 3개 쪽의 城門을 直交連結시키는 井田制의 格字形 구조를 보인다. 세째, 都城의 中心施設인 宮城이 전체도성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경우(北京城)와 北邊中央에 위치하는 경우(長安城)로 대별되나 전자가 周禮考工制의 원칙에 따른 유형이라면 후자는 그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北偏型은 중국도시의 대부분을 점하는데, 그 까닭은 중국의 陰陽五行의 觀念상 태양이 비치는 앞쪽은 陽, 미래, 남성, 聖스러운것을 상징하며, 뒷쪽은 陰, 과거, 여성, 俗된 것을 상징하기 때문인것으로 볼수있다.(강대현 ; op.cit.pp.49-51,/윤정섭 ; 1984, p.44,/이상구 ; 1984, p.70,/Tuan Yi-Fu ; 1977, p.40)



&lt;圖3&gt; 三禮圖—주례고공제의 모식도

우리나라의 전통도시는 三國時代의 도성들과 新羅의 慶州에서부터 高麗의 松都, 朝鮮의 漢城 및 地方都市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으로 「周禮」의 都城制를 따르고 있으나,(이상구, ibid, p. 78)古代 新羅의 幾何學的 형태의 都城과 井田制는 高麗, 李朝에 이르면서 韓國固有의 地形的 與件에 의해 비교적 不規則한 都城形態와 街

路網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都城의 경우 中國과 같이 外城을 따로 두는 대신 山城(南·北漢山城等)으로서 外城을 대신하기도 하였으며, 北京은 물론 西歐의 중



&lt;圖4&gt; 풍수형국의 일반도

세기 까지의 많은 성곽도시들이 濠(Moat)를 갖고 있었으나 한국의 도시들은 인공적인 濠를 갖추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江이나 협준한 자연지형의 이용으로 이에 대신하였다. (강대현 ; op. cit. p. 5,/윤정섭 ; op. cit. p. 138)

대부분 도시에서는 中心施設(宮闈, 官衙)을 北方에 偏心 배치하였는데 이는 風水地理上의 이유와 北方外敵으로 부터의 防禦목적상 북쪽의 鎮山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 이 鎮山 앞의 “穴”에 鎮山을 배경으로 하여 中心施設을 위치시키려는 의도(김형만, 김철수 ; 1982, 7. p. 61)로 解釋할 수 있다. 이러한 “風水說”은 北半球 中緯度지역의 경우 기후적요인으로 인하여 일반화될 수밖에 없는 논리로서, 원래는 B.C. 4~5C경 전국시대 말기에 발생, 漢代에 와서 陰陽說과 결합, 보다 치밀한 논리로 정리된것으로서(최창조 ; op. cit. pp. 44-45) 우리나라에 와서 특히 발전, 성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화된 것은 羅末僧侶道詵이후이며 특히 고려말 圖識說과 합류되어 統治體制를合理화시키려는 政治的 意圖와 함께 널리 民間信仰으로 성행되게 되었다. (손정목 ; 1973, p.59) 우리나라에서는 古來로 都邑을 選定하는데 있어 風水地理說을 중시하였음은 통일신라로 부터 벌써 五行風水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윤정섭, op. cit. p. 81)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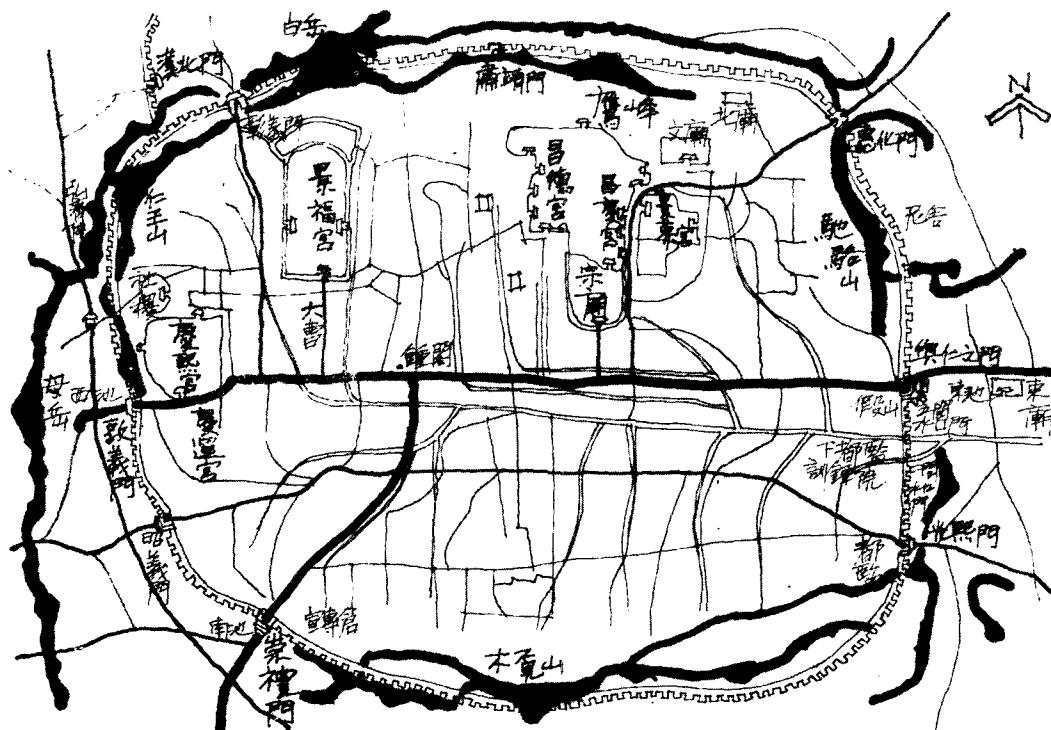
려, 이조시는 中國의 朱子學을 기초로 하는 易學과도 결합하여 더욱 발전적으로 國域, 國都, 都邑의 位置選定 및 景觀計劃에 적용케되어(최창조; op. cit. p. 312) 결국은 首都를 비롯 府, 牧, 郡, 縣이든 자연부락이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定住地중에서 그 立地가 풍수적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없는 듯 하며(손정목; op. cit. p. 258)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常識의 風水類型의 解釋과 立地選定등의 空間性에서 한결음 더 나아가 時間性까지도 포함하게 되고(고려의 延基思想에 의한 三京의 巡駐 등) 때에 따라서 立地의 무리를 해 가면서 까지 風水의 價值觀에 부합되도록 하는 경우 및 風水의 形局에 결함이 있을 때 物理的 景觀을 人爲的 造作으로 補強한다든지(裨補; 主로 造山, 연못조성, 塔또는 檻竿설치, 人工植栽등의 방법) 風水上의 凶한 氣(주로 지나치게 強한 景觀要素)를 이에 對應할 만한 景觀要素를 造成함으로써 相殺시킨다든지(壓勝: 主로 해태, 石狗 등 象徵的 物體設置 또는 意圖的 命名등의 방법) 하는 정도까지의 象徵의 방 법을 통해 細部的 適用方式의 多樣性을 보이게끔 되었다. (Ibid; pp. 83~96)

## 2) 國都, 都邑, 地方小邑의 基本景觀體系 比較

朝鮮王朝의 都市들은 전술한 바와같이 그 機能的序列에 따라 편의상 크게 國都, 都邑(道監營소재지급의 府, 牧郡도시), 일반邑(郡, 縣廳舍 소재지급의 도시)의 위계로 구분되며 이를 각기의 景觀 體系上의 差異點을 比較해 볼으로써 都邑景觀의 相對的 特性을 一般化 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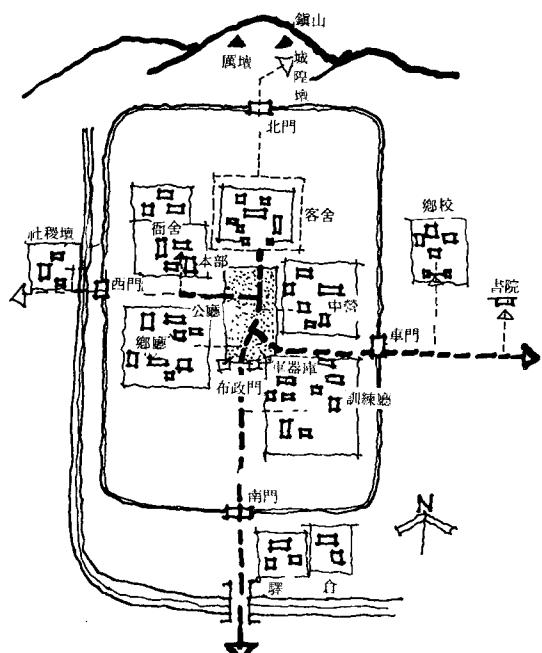
朝鮮王朝時代는 中央은 물론 地方에 이르기까지 國王中心의 官僚體制가 완비된 것에 그 특색이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地形의 차이를 간과한다면 모든 都邑 및 一般邑城의 景觀體系는, 中央集權의 統治構造를 反影하는 면에 있어 國都의 原型을 縮小 또는 變形反復하는 비슷한 形態를 가진다고 보아 별 무리는 없다.

立地면에서 보면 國都를 포함하는 重要都邑들은 지방행정의 중심지적인 기능에 의해 거의 모두 内陸의 교통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읍은 北方의 國境과 東南海岸 및 서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특히 국경의 邑들은 국방의 이유상 어떤것은 규모면에서 都邑보다 큰것들도 있으므로 (윤시운; 1984, pp.134~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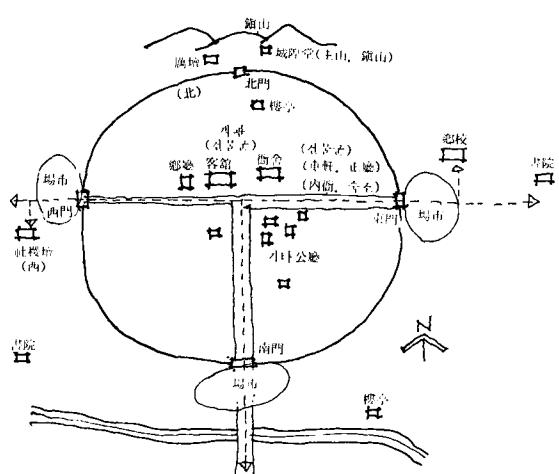


〈圖5〉 國都, 漢城의 平면구조

上位의 도읍과 下位의 일반邑이 규모면에서도 정확히 위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주변 자연환경 면에서 본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한국도시들이 기후적응상, 방어의 필요상, 風水的 理想型을 따르고자 하였으므로, 풍수의 기본요소인 山, 水, 方位를 중요시하여 반드시 鎮山과 內水, 즉, 河川을 끼고 있었다. (손정목; 1973, p. 63/ 이상구; 1986, 1973, p. 63/ 이상구; 1986, p. 51) 설사 풍수설이 유행한 고려시대 이전에 형성된 邑으로서 風水의 理想型에 안맞는 立地라 하더라도 적어도 邑基(主廳舍터)만은 그 취락



〈圖6〉 都邑景觀體系의 일반도



〈圖6〉 地方小邑景觀體系

내에서 지리적 最吉地에 위치시키는 것이常例가 되었고 이 邑基를 起點으로 地理說에 가급적 충실히 예천데, 明堂을 중심으로 靑龍白虎에 따르는 등으로 城郭이 축조되었으며, 또 고을을 둘러싼 주어진 地勢도 되도록 風水의 으로 利用, 說明되고 때로는 人爲의 으로 造作도 되었다. (손정목; 1974, pp. 82-83)

### (1) 境界體系

한국의 거의 모든 전통 도시들은 城郭에 의해 그境界가 지워졌다는 것은 상식적 사실로, 성곽에 의해 도읍의 성장이 저지되었으며 도읍내에는 비교적 선택된 신분만 거주하였으므로 서기 1900년대까지 성곽이 유지되는 동안은 성곽내부가 高密化는 되었을지언정 기본공간의 구조적 변화는 비교적 없었다.(최병선; op. cit. p. 213/김형만, 김철수; op. cit. p 90) 城壁은 주로 직접적인 방위목적 뿐만아니라 정수한 곡물의 저장고로도 필요한 것 이었으며 한국의 경우 都城(국도의 성곽)과 邑城(府, 牧, 郡의 지방도시의 성곽)을 막론하고 中國과 같은 內城과 外城의 2重城郭은 없었으며, 外城 대신에 주변지형을 이용한 “山城(외적방어와 전략시의 피난처)”이 이를 대신 하였다. (윤정섭; op. cit. pp. 173, 89) 都城의 경우 성벽안에 王宮을 둘러싸는 宮城이 있는 것이 차이점이며, 경주, 南源과 晉州를 제외한 대부분의 읍성은濠(moat)를 두르지 않았다. 이러한 성벽으로 경계를 이룬 도시의 平面形態를 輿地圖書에 의해 분류해 보면 圓形이 49.3%(37개 邑城), 方形이 30.7%(23개 邑城), 不定形이 20%(15개 邑城)으로 나타나 圓形이 지배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지형의 특이성과 이러한 古地圖의 형태가 實測된것이 아니고 主觀的인 면이 가미된 것이라 볼때 圓形에 가까운 不整形이 首位이고 평지城의 경우인 方形이 그 다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상구, op. cit, p. 194) 都市의 内部領域과 外部領域을 구분짓는 가장 명확한 境界物로서의 이러한 城郭과 더불어 그 外部에 있어서도, 環境認識의側面에서 都市領域의 보다 外延의 境界指標物(Markers of Boundary)로 解釋할 수 있는 景觀要素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各種의 宗教施設들, 2차적으로는 各方位의 風水地形들이 그것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朝鮮王朝에 있어서 一般都邑의 宗教的 施設들은 소위 '三壇一廟' 즉, 社稷壇, 城隍壇, 廣壇, 文廟가 있었다. (이상구; 1984, pp. 22-23). 國都의 경우, 社稷壇과 宗廟宗廟가 都城內 左端과 右端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일반 都邑의 경우 그들은 거의 대부분 城밖 東西南北에同心圓狀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즉, 社稷壇은 城밖 西

側에, 宗廟를 대신하는 文廟는 城밖 東側에 鄉校안에, 城隍壇과 廪壇은 城밖 北側이나 鎮山등 風水地形에 인접해 배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城郭外部 市街地의 積界를暗示하는 積界指標物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이우종; 1986, p. 61), 그 보다 더 外廓으로는 前述한 바와 같은 風水地形들이 고을의 背景내지는 物理的인 最外廓 積界的 景觀요소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中心體系

都市景觀에 있어 中心性을 表現하는 주요 公共施設(주로 官에 의한 公共建物)들은 國都와 都邑 그리고 一般邑에 있어 그 行政的 位階에 따라 量과 名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도 앞의 同型反復의 原則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國都인 漢陽의 공공시설의 배치는 周禮의 「面朝後市, 左廟右社」의 원칙에 따랐으나 官城이 主山인 白岳을 배경으로 하여 北偏 배치됨에 따라 景福宮의 정문인 光化門앞 廣路 양측에 議政府를 비롯하여 제정무를 분담한 六曹등이 대칭적으로 늘어서 있었으며 官城左側에 先祖王의 위폐를 모신 宗廟, 宫城右側에 土地神의 제단인 社稷을 두었고(손정목; 1974, 4, p.62) 도성내의 高度制限으로 이러한 公共施設群은 도시의 sky line에서 주변의 風水的 地形과 함께 더욱 돋보이는 中心的 視覺指標(landmark)를 이루게 되었다. 地方의 都邑과 名邑들도 이러한 「周禮」의 원칙을 따르나 공공시설의 종류와 배치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지방邑城에서는 일반적으로 “客舍”, “衙舍(東軒)”, “鄉廳(貳廳)”이 각기 중앙정부의 王, 고을의 守令, 고을의 鄉民을 상징하는 건물로서 邑城 景觀指標의 3核을 형성하는(이상구; 1984, p. 195) 中心建物이 되나 都邑의 경우 道의 監營으로서의 觀察府 또는 宣化堂이 東軒보다 優位의 건물로 추가된다. 이중에서도 王權을 상징하는 건물인 客舍가 가장 중요한 위치, 즉, 鎮山을 배경으로 하는 中央 또는 北端에 놓이고, 宣化堂이나 東軒 또는 鄉廳이 이와 병렬하든지 또는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이외의 官衙建物들은 東, 西로 나뉘어 文官이 사용하는 本府, 東軒등은 주로 西側에, 武官이 사용하는 中營, 訓練院, 軍器庫등은 주로 東側에 배치되었다.

### (3) 方向體系

都市背景에 있어 方向性의 表現은 主로 城內 市街地의 幹線街路網體系와 各方向의 城門, 그리고 風水의 各 方位의 地形地物에 依한다고 보인다.

朝鮮王朝 各級 都市內의 主要 道路網은 「周禮」의

井田法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지형상 대륙과 같은 넓은 평탄지에 큰 규모의 도시를 만들 여건이 안되었으므로 中國의 도시에서처럼 東西와 南北 공히 3개씩의 幹線道路로 直交케하여 4方 3개씩 12개의 城門을 내는 방식을 삼지않고, 대신 東西方向과 南北方향으로 각 1개씩의 도로를 직교케하고 東, 西, 南, 北各方向으로 1개씩의 城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北쪽에 鎮山과 中心行政施設을 배치시키는 관계로 北方의 道路는迂迴내지 形式上의 것이 됨으로써 東西軸의 中心点에서 南쪽으로 또 하나의 도로를 내는 이른바 T字形 幹線道路가 一般型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구; 1986, 5, p. 53/김형만, 김철수; op. cit. p. 92) 國都의 主가로망과 지방의 都邑 및 일반邑의 그것을 비교해 볼 때 +字型의 主幹線道路의 井田制를 비교적 정연하게 적용한 것은 오히려 都邑 및 邑城 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國都 漢城의 경우 넓은 空間規模에 主軸, 副軸을 直線으로 交叉시키는 것은, 遷都以前 도시의 既存가로망상, 또는 평탄치 않았던 地形上의 이유상, 防衛目的上, 視覺的거리의 Human Scale 상, 적절치 않게 판단된 결과로 解釋할 수도 있겠다. 漢城의 主가로망은 國初에 벌써 정비되었는데, 경복궁, 광화문을 중심으로 하여 黃土縣(광화문 네거리)에서 興仁之門(동대문)에 이르는 현 종로통과 大廣通橋(종각앞)에서 宗禮門(남대문)에 이르는 현 남대문통을 직교케하여 (末端部는迂廻) 그 幅은 50尺 이상으로 점하게 하였으며, 大典會通工典에 의하면 도성내의 大路는 폭 56 尺, 中路는 16 尺, 小路는 11 尺이라 정한 바 있으나(손정목; 1974, 4, p. 63) 都邑 및 邑城의 가로폭에 관한 기록은 확실치 않다. 도읍과 읍성의 T자형 도로패턴은 지리, 지형적 조건에 따른 각方向 道路의 使用 頻度에 따라 어느 한 方向의 길과 이에 따르는 城門을 도로의 幅과 城內의 규모에 의해 특히 強調(주로 南門 및 南門路)했으며 이러한 大小의 城門은 實質的인 關門역할 외에 象徵的인 方位를 강조하려는 意味도 強했다. (김형만, 김철수; op. cit. p. 92).

즉, 朝鮮王朝 各級都市에 있어서의 일반적 方向性은 道路패턴, 各方位의 城門과 風水地形에 의해 表現되었고 볼 수 있는데, 道路패턴이 求心的 方向性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各 城門은 中位的 方向性을, 各方位의 風水地形(風水四神)은 相對的으로 遠心的 方向性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 (4) 領域體系

도시에서의 社會體系는 그 住民構成 및 그 位階를

통해 나타나고 이것은 또 그 도시의 土地利用의 領域性을 통해 象徵的으로 可視化된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각 領域은 可視的인 境界指標(Markers of Boundary)에 의해 3분되는데 먼저, 都市城郭이 城內領域과 城外領域을 구분하되, 이 城內領域은 다시 城內主街路網에 의해 諸領域으로 區分된다. 李朝時代 도시부의 住民은 城內領域과 城外領域이 현저한 身分의 差異를 보였는데 城내는 주로 權力과 富를 가진자가 거주하는 터전이었는데 反하여, 城外는 商人이나 工匠들 및 農耕에 종사하는 商人們과 獨立 外居奴婢들이었다. (손정목; 1980, 4, p. 87) 그러나 幼學과 閑遊의 무리들(兩班 階層중에서의 下層無官者)은 그들이 의존하는 財力의 근거인 農村部에 보다 많이 居住하였으므로 城內領域은 主로 官衙當務者 즉, 高級官僚와 中人인 衙前들 또는 官奴와 기타 官廳의 서비스계층과 이의 가족 친지 들의 居住領域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손정목; 1977, p.194)

이러한 城内外諸領域에 있어서도 四民(士, 農, 工, 商)을 雜居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身分別居住地를 分離시켰던 바 官員은 궁궐 및 관청 가까이에, 관원이 아닌 商人과 農夫는 농토에 가까운 성문 인접지역에 주로 街路網을 그 領域境界로 하여 分離居住하였으며, 工人과 商人은 主로 城外市場 가까운 곳에 입지케 하였다. (김철수, 박병주; 1984, 6, p. 10)

國都 漢城의 경우 도시규모가 큰 관계로 더욱 세분화된 거주분리를 볼수 있는데 양반인 경우에도 陽地에는 勢道와 富를 가진 現職 高級官人們이 살고 無官 또는 官職 待期中의 貧한 자는 陰地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陽地(北村)와 陰地(南村)사이에 市場(관세시장인 六矣麻)이 생겨 商人과 匠人이 거주하게 되었다. (손정목; 1973, p. 103, 11, 1977, p. 320) 또한 都市中心地域 居住領域의 兩班과 中人도 文·武의 차이에 따라 東西로 立地가 區分, 中央部의 西部는 특히 文班 및 中人 즉, 胥使와 衙前, 東, 南部에는 軍校와 下級將校들이 集團居住하는 別途의 下部領域을 형성하고 있었다. (최병선; 1974, pp. 218-220) 이러한 朝鮮王朝 都市城郭內의 身分別居住領域은 市街地의 主幹線道路에 의해 현대적 개념으로 보아 規模上 몇개의 地區(Community) 내지 近隣住居單位(Neighborhood Unit)들을, 小邑의 경우 전체가 하나의 近隣主區를 형성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근린주구는 부속도로에 의하여 다시 세분되어 각기의 부속마을(Village)들을, 부속마을은 다시 곡선형의 불규칙한 小路에 의하여 다시 5-12戶의 이웃집단(Cluster)을 형성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박찬용 op. cit. p. 36) 도시

내에도 未占有내지 退去등으로 남은 空地는 農地地域으로 쓰였으니 이를 경작하는 이른바 都市 住居 農民들도 소수나마 있었다고 볼수 있다. (손정목, 1977, p. 108) 이밖에 城外領域을 形成하던 主된 身分階層은前述한 바와 같이 商·工人계급으로 이들은 主로 商業用地로서의 場市주변에 集團居住하였다. 朝鮮時代의 商業施設인 場市는 市廬과 鄉市로 구분된다. 商設市場인 사전은 開城, 平壤, 全州, 大邱, 水源, 서울등 몇몇 대 도회지 즉, 행정적 위계가 높은곳에만 설치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中期이후 그 규모가 커져서 城內의 六矣麻으로까지 발전하였으나 그외의 지방도시는 定期市인 鄉市 또는 場市에 의존한다. 이 場市는 대개 성문 밖에 설치되었으며 小邑의 경우는 主通過城門밖에 1개소, 大都邑의 경우는 各 城門밖에 1개소씩, 2~4개소가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규모가 좀 커지면 도매행위와 貸錢業을 주로한 客主와 旅客등의 常設집포가 생기고 속칭 都家라 불렸던 同種商人들의 집회소가 생겼으며 평일에도 旅行人에게 酒食과 宿泊의 장소를 제공한 酒幕도 생겨 점점 常設市場화하였고 (손정목; 1977, pp. 71~88) 이러한 商業地域 근처에는 이도시의 工業地域이라 할 만한 匠人們의 集團居住領域이 생기게 되었는데 보통 성문에서 1~2km 멀어진 자리에 각 工匠들이 기능 및 生產種別로 나누어 群居하였으며, 全州의 예를 들면 당시 부채제조업자인 扇子工들이 성문밖 半石里(현·시내 樓鶴洞)에 집단 거주하였다. (손종목; 1977, p. 326, 71) 이 밖에 漢城의 경우 현대도시계획에서의 Green Belt라 할만한 제도가 시행되었으니 한성부의 관할구역은 城內와 城底十里로 나누어져, 이 성저십리를 國初에는 개발을 제한해 造家는 물론 入葬, 伐木을 금하였다하니(손정목, 1974, 4, pp. 64, 65) 近代의 그린벨트의 도시규모화 산방지의 목적보다는 保安上의 목적 또는 都市의 城内外領域全體의 境界를 城郭과 더불어 反復 強調하려는 環境心理的인 景觀裝置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3. 事例研究

序論에서 밝힌바와 같이 본 研究의 題材이자 事例研究의 對象은, 지방의 소규모 邑城과 國都의 中間의 位階로서의 이조시대 府, 牧郡의 地方大都市 즉 都邑級의 도시들이다. 이러한 도시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河川의 中·上流지방의 침식盆地에 형성되었었으며 (최창조; op. cit. p. 268) 太宗이후에 주로 「州」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朝鮮王朝時代 지방 대도시 중 地域的 衡平을 고려하여 全羅道와 延尚道, 忠淸道

의 각 지역에서 그人口規模가 비교적 크고 地域의 代表性이 있는 도시 중 비교적 과거의 都市形態의 痕迹(舊도시의 有形文化財)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을 택했다. 또 하나의 選定基準으로서는 과거 도시의 形態型 즉, 都邑과 城郭의 形態의 關係를 고려해서 ① 가장 典型적인 城郭都市 즉, 성곽이 도시의 外的境界를 분명히 限定하는 李朝都邑의 一般型(全州府)과 ② 성곽이 都邑의 主要部를 限定하고 城郭의 背後地에도 도시의 公共施設과 住居地域이 있어 城內·外部가 한개의 도시를 이루는 型(晋州牧) 그리고 ③ 도시의境界를 둘러싸는 城壁이 없고 대신 自然地型과 부속 山城이 이를 대신하는 型(公州牧)의 3類型의 도시 즉, 전라도의 “全州”와 경상도의 “晋州” 그리고 충청도의 “公州”를 事例地域으로 選定하였다. 봉건이조시대의 도시경관 해석의 資料는 實제적으로 그 시대의 都市景觀이 그대로 現存하지 않으므로 文獻調査와 더불어 각종 古地圖 및 日帝初期의 實測地圖를 종합하여 圖上분석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었다. 分析의 體系는 序論에서 밝힌 바와 같이 都市景觀體系의 原型의 要素들로서의 “中心(Center)”, “境界(Boundary)”, “方向(Direction)”, “領域(Domain)”의 構成體系를 分析하고, 그러한 景觀體系에 在內한 社會·文化的 意志(Socio-Cultural Intentions)를, 上記 各 景觀要素들과 結付된 “具體的 外觀(Physical Appearance)”, “意味(Meaning)”, “行爲(Activity)”와 함께 同時に 解釋하는 方法을 취하기로 한다.

### 1) 全州府의 都邑景觀體系

#### (1) 對象地 概要

全州는 馬韓이래 湖南의 中心地로서 백제시대에는 完山, 통일신라때 全州, 고려때 全州牧, 完王府(恭愍王), 이조때 完山留守府(李太祖), 全州府로 되어 李朝末까지 觀察使가 거주하는 道監營소재지로 있다가 日帝時(全州府)와 解放以後 現在(全州市)에 이르기까지 全羅北道의 道廳所在地 역할을 하고 있는 行政, 教育, 商業, 文化的 中心地이다.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2. p. 398) 李朝時 東西 약 815m, 南北 약 945m, 면적 18만여평의 長方形에 가까운 형태의 성곽을 가졌던 전주는 (송정희, 1961, pp. 86-87) 北部에 乾止山(103m), 東部에 駒鱗峰(271m)과 僧岩山(306m), 南部에 南固山(248m), 西部에 多佳山(120m)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南固山과 多佳山 옆에 萬頃江의 上流인 全州川이 흘러 舊邑의境界를 이루고 있었다. 현재 舊都邑時代의 文化財로는 당시 城의 南門이었던 豊南門, 客舍를 비롯하여 慶基殿(李太祖의 眞殿설치), 肇慶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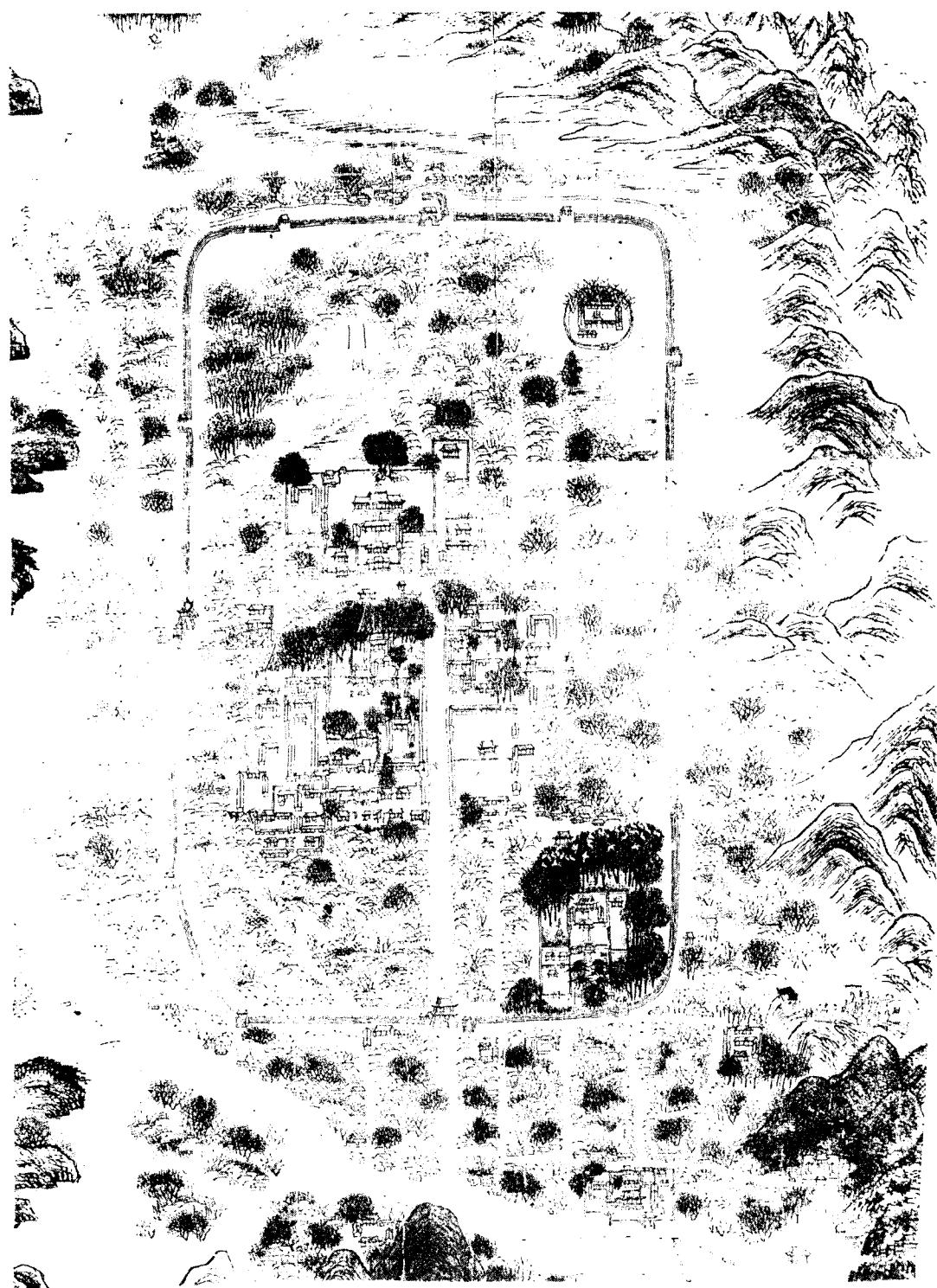
(全州李氏始祖의 위패를 모신 건물), 鄉校 및 東固山城, 南固山城등이 남아있다. (건설부 국립지리원; op. cit, p. 399, 전주시 1986, 참조)

#### (2) 都邑景觀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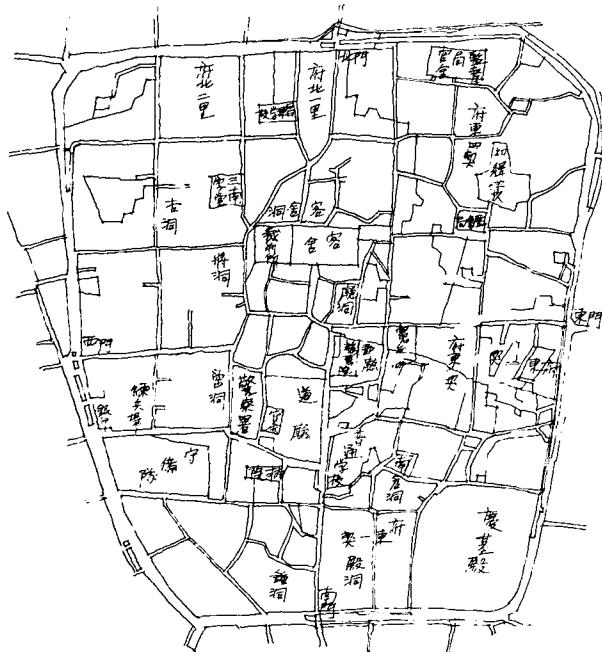
신라말의 高僧 道詵은 全州의 風水를 「乾維空缺 氣脈洩焉」이라고 하여 北方이 유독 虛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乾止山”을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나 (都城中心에서 北方 4.5km거리) 鎮山으로 定한 후에 邑을 정하였으며, 「乾虛蔽止」를 위해 北固寺 鈞정이(人爲樹林)를 造成케하고, 乾止山과 可連山사이에 德津池의 인공제방을 만들어 北方을 막도록 하였다. (윤성주; 1985, p. 26) 이러한 風水上의 北方의 開放感을 景觀的, 心理的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조시대의 全州府 古地圖(규장각 소장)의 여러 部分을 통해 推測해 볼 수 있는데 四方의 門중 北方만을 蕤城으로 돌리고 客舍後面에 人工동산을 造成하였으며 주요 公共施設地의 北面後方에 人工造林을 한 것등이 그것으로 판단된다.

全州邑城의 平面形態는 4隅을 둥글게 한 方形의 모양이며 이는 平地에 입지한 邑城의 典型적인 形態이다. 城內의 街路는 평탄지형이므로 거의 格子型에 가까운 主, 副가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古地圖를 참조해 보면 알수 있으며, 간선도로는 東西街路의 中央에 南北街路를 直交시켜 韓國邑城의 가장一般的 主街路 형태인 T字型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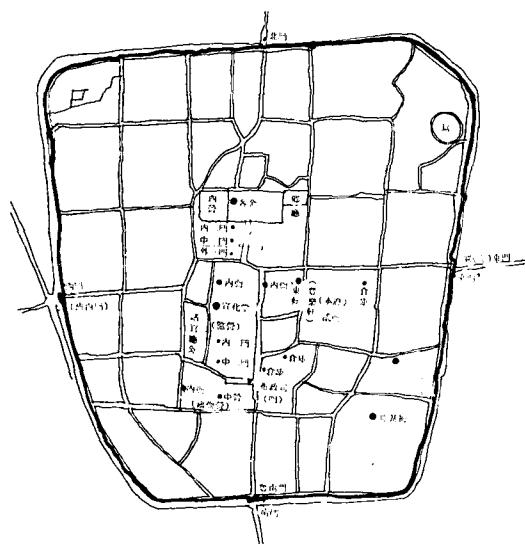
그 다음으로 봉건이조시 都邑景觀의 물리적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주요한 公共施設의 配置를 성곽전체 및 가로패턴과 함께 관찰해 보기로 한다.前述한 바와 같이 '지방의 일반 小邑의 경우 邑城내의 空間構成의 3核으로서客舍와 官衙, 鄉廳이 主경관지표물의 기능을 하고 道의 行政을 맡아보는 觀察使가 파견된府, 牧의 경우, 이 官衙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道감영 즉, 觀察使營(보통 觀察府, 중심건물은 宣化堂의 이름이 쓰임)과 府의 邑治를 담당하는 府尹廳舍(보통 東軒 또는 本府라 부름)가 분리 배치된다. (최창조; op. cit. pp. 265-266) 全州의 경우 여러 古地圖를 종합해 보면 上記의 客舍와 鄉廳이 전체공간중에서 가장 높은 位階의 場所 즉, 最上部(中央의 北端)에 배치되고, 中央軸(南北도로)의 西側에 觀察府와 宣化堂이, 東側에는 本府(全州府, 東軒, 貳府 등으로 표기)가 배치되어 있되, 客舍는 中央軸의 中心上方에 배치되지 않고 宣化堂 건물과 軸를 共有하여 西側으로 비껴나 있음으로 해서, 客舍·鄕廳 → 觀察使營 → 本府營의 위치질서를 시사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東



〈圖8〉 全州府의 古地圖 – 규장각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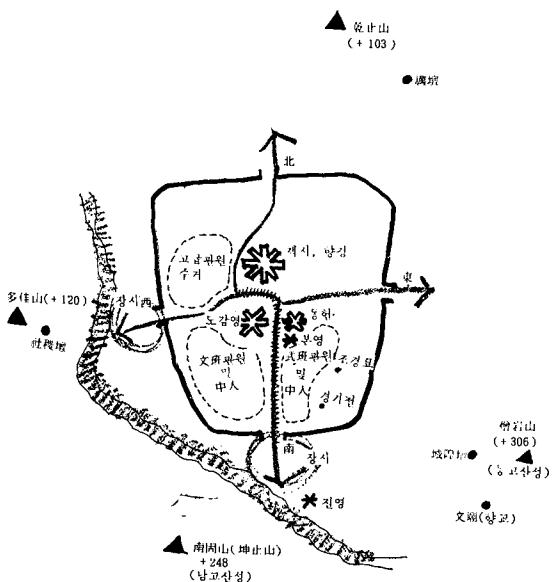


〈圖9〉 1910년대의 全州府 실측도 – 서울대도서관소장



〈圖10〉 조선왕조시대 전주부의 복원도

側東軒 아래쪽은 전라도의 全軍의 지휘본부인 本營(南營등으로 표기)이, 그아래 성 밖 東쪽에는 府의 수비군인 鎮營(中鎮營으로도 표기)이 배치되어 있어,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都市中心軸의 西側은 文班의 官衙가 東側에는 武班의 官衙가 배치되어 觀念上의 行政體系와 物理的表現上의 體系를 一致시키려는 意圖를



〈圖11〉 전주부 경관체계 모식도

볼수있다. 또한 客舍본건물이 東西주도로에서 어긋나 있고, 남북도로에서도 비껴나 있는것은 도읍의 第1景觀表物인 客舍전물로의 展望을 굽은 軸(Bent Axis)을 사용,迂迴接近시키는 우리나라 읍성경관구조의 일반적 Pattern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박찬용; op. cit. p. 35) 이밖에 거의 모든 官衙의 주 건물은 南向하고 있지만 진입은 東, 西向으로 하게하여 주건물까지 2회이상 屈折進入케 하는것은 앞의 接近體系方式이 細部空間에서도 反復되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규장각지도에서는 특히 官衙地區 입구에 布政門(홍살문 형태)을 두어 이러한 Sequential한 進入過程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前產業都市에서의 文化景觀決定은 크게 社會體系의 인要因과 宗教的要因의 두가지에 의한다고 전술하였던바, 봉건시대 도읍경관을 형성하는 주요시설로서는 上記의 統治 및 軍事目的의 都市施設 다음으로 宗教的目的의 都市施設을 들수 있다. 일반적으로 首都級 도시의 경우 周禮의 「左社右廟」의 기준에 의해 主宮城의 西側에 社稷壇을, 東側에 宗廟를 배치하나, 지방 도시의 경우 城郭밖 西側에 社稷을, 東側에 文廟(鄉校에 포함)를 배치한다고 전술했다. 全州의 경우도 성밖 西川건너 多佳山쪽 봉우리에 社稷壇을 성밖 東南쪽에 鄉校를 배치한 것은 위의 일반형과 거의 일치하나, 全州의 경우는 李氏시조의 탄생지로서 李太祖와 全州李氏始祖 李翰公의 위패를 모신 “慶基殿”과 “肇慶廟”를

하나의 施設都을 형성해 城內의 東南端에 위치케 하므로써 文廟보다 上位의 공간위계적 위치에 배치한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서울宗廟의 경관구성과도 흡사하게 주변에 울창한 수림을 둘러 聖化된 領域의 境界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地方邑城의 종교시설로서의 3壇1廟中 나머지의 시설 즉, 土俗信仰의 색채가 짙은 城隍壇과 廣壇의 경우 前者は 보통 邑의 鎮山(전주의 경우 乾止山)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주는 左青龍에 해당하는 「僧岩山」에 설치하였는데, 乾止山은 읍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象徵的, 觀念的인 鎮山에 불과하므로 읍성주변의 가장 높은 山(주 Landmark인 僧岩山; 306<sup>m</sup>)에 위치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전주시; 1983, p. 631에 의하면 한때 성황단을 전지산으로 옮겼던 적도 있다 한다.) 後者인 廣壇은 市의 北東쪽의 「반대뫼」(盤始山)에 입지하였으며 官에서 주도하여 兩壇에 매년, 특히 성의 축성이나 문의 보수시에 제사하였고, 廣壇에 제사시에는 城隍壇에 먼저 제사를 하고 제사를 지낸것으로 나타난다. (Ibid. pp. 627-631)

그 밖에 住民구성에 따른 居住 및 活動立地를 살펴보면 城內에는 주로 高級官僚, 中人(관아의 아전급)과 湖南平野의 不在地主들 즉, 부유한 평민들이, 東門밖 경기전과 향교사이의 東南部에는 주로 兩班이, 南門밖에는 官奴(외거노비)가 南川건너에는 工匠, 白丁 및 賤民들이 集團居住하였으며 四大門밖 모두에 常設市場이 형성되어 商人們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송정희; op. cit. p. 86; 유흥주; op. cit. p. 52) 朝鮮王朝 全州邑城의 景觀體系를 環境認識의 側面에서 綜合해보면, 都邑의 立地와 方位體系는 크게 風水의 要因에 의한 것임이며 이러한 風水의 地形의 구체적 결합을 “觀念的 設定(“乾止山”의 명칭을 「乾虛敷止」에서 命名, 案山인 南固山을 “坤止山”이라고도 함)”과 “人爲的 補強(北固寺金정이, 德津提, 北門의 蔽城, 客舍뒤의 造山, 主要施設地 後面의 造林)”을 통해 완화하려 했으며, 都市內 기본적方位體系를 이루는 主要街路構成과 中心體系를 이루는 主要公共施設의 配置形態 및 社會階級에 따른 居住立地 分離는 크게 「周禮」에 의존하였으나 세부적인 軸의 上下左右의 위치 관계를 통하여 統治體系의 觀念의 位階를 物理的으로 表現하려 하였던 것을 볼수 있다. 특히 “社會的 最上位階의 시설물인 “客舍”는 平面的 最上位階地인 城內北端에 (北方이 虛함으로 北側城廓과의 사이에는 일정거리를 두고 人爲造林하였으며, 北門까지의 도로는迂迴ト록 하였다.) “宗教的 最上位階”的 시설물인 “城隍壇”은 立面的 最上位階地인 僧岩山에 위치케 함으

로써 그 시대의 社會的, 宗教의 二大 精神的 價值體系를 平面的, 三次元의 空間體系에 復合的으로 投影시킨것을 볼수 있다. 全州府의 境界體系는 2절 일반론에서의 典型的인 都邑景觀의 境界體系와 일치하여, 都市城郭, 三壇一廟의 宗教施設, 외곽의 風水的 自然要素들이 각기 内的, 中位的, 外的 境界指標物 (Markers of Boundary)역할을 하고 있다. 그밖에 社會階層別住居領域體系의 分化를 보면 城內는 주로 上位級 官人們 및 衙前등 官廳의 서비스계층과 이들과 互惠관계에 있는 不在地主級商人, 四門밖에는 商人們 특히 南門밖에는 관청에 예속된 賤民階級들이, 廣基殿과 鄉校 등 舊時代의 精神的 象徵的 근처인 城밖 東南部에는 兩班들이 居住(현재의 韓屋保全地區로서, 그 立地로 보아 이들은 일반平民들과는 달리 주로 東門을 통해 城내出入을 하였으리라 추측된다.)함으로써 社會體系에 따른 立地가 「周禮」의 各 方位에 따른 公共施設과 土地利用에 어느정도 符合되어 居住分離의 양상을 明示的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 2) 晉州牧의 都邑景觀體系

### (1) 對象地 概要

晋州는 三國時代때 백제의 居列城(居陁)이라고 칭했으며 통일신라때 康州, 고려때 晉州郡이라 불리다가 12牧의 하나(983년)로 지정되고, 995년 10道 개편에 따라 三南道소속 兵馬節度使가 주재하였으며, 이조시 晉陽大都護府(太祖), 晉陽牧(1401)을 거쳐, 高宗때 (1895년) 23府制 실시에 의해 道廳所在地인 晉州府가 되었고, 日帝時 도청소재지가 釜山으로 이전함에 따라 (1925년) 晉州邑, 晉州府로 머물다가, 解放後 1949년도 晉州市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晉州는 北으로 飛鳳山(138<sup>m</sup>) 東으로 仙鶴峰(또는 王峰 134<sup>m</sup>), 西로 당산재(172<sup>m</sup>)에 의해 둘리싸인 분지형의 범람원에 입지한다. (건설부 국립지리원; op. cit. pp. 666-667등) 李朝時의 古地圖와 晉陽誌를 참조하면 晉州城은 道行政官衙와 軍事施設을 포함하는 內城과 住居地를 포함하는 外城이 人工斬濠(Moat)와 더불어 南江가에 自然지형을 이용한 不規則形態로 設置되어 있었으며, 城의 북쪽 飛鳳山밑에 별도로 牧의 行政官衙가 설치되고 이곳과 晉州城사이의 넓은 敷地에 市街地가造成되었던 것을 볼수 있다. 舊 邑城施設의 잔존물로는 현재는 史蹟公園化된 晉州內城과 舊道監營正門인 鎮南布政司를 비롯한 구 內城內의 사적들과 鄉校, 飛鳳樓 凤山祠, 望晋山城등이 남아있다. (전주시; 1983, 경상남도; 단기 4291 中篇 참조)



〈圖12〉 晉州牧의 古地圖 – 진주시 개인소장

## (2) 都邑景觀體系

河倫의 凤鳴樓記에 의하면 晉州의 主山은 城北의 飛鳳山이고 案山은 강건너의 望晉山이라 하였으며, 左青龍은 玉峰으로서 그 봉우기가 節制를 받지 않은 (主山보다 더 높다.) 客과 같으므로 그곳에다 開慶院을 지어 地氣를 누르려 하였다 하고 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 제130권 (진주목) pp. 194-196) 정몽주의 후손이자 飛鳳樓의主人인 鄭命壽씨(82)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飛鳳山형태가 凤의 形局인지를 봉의 棲息과 繁殖을 위하여 비봉산의 오동나무 숲과 大寺池 및 「봉의 알자리 (上鳳西洞에 현존)」를 조성하고 南江 가까이에 봉의 먹이로서의 대숲을 조성하였다 하며 晉州의 풍수형국이 行舟形인지라, 배의 형상을 구체화 하기 위해 大寺池를 더 파서 南江과 잇는 침호(Moat)

를 만들었다 하는데, 이러한 卵丘나 樓池造成의例는 李朝時 마을이나 邑城의 風水裨補의 예로一般的인 것이다. (손정목; 1973 p. 91), 또한 李朝時의 古地圖에 의한 全體都市에 있어서의 垂直的 景觀要素의配置를 볼때, 道觀察府를 제외한 客舍와 本州(牧의 邑治행정시설군)를 邑城내에 두지 않고 客舍는 飛鳳山 바로 밑에 두고 本府는 그 西쪽 方向에 帶狀으로 설치한 것과 大龍寺, 中龍寺, 小龍寺와 社稷壇을 州西五里에 설치한 것, 本州 서쪽 「봉알」자리의 人工동산造成, 그리고 觀察使營廳舍後苑의 造山과 造林등은, 主山인 飛鳳山이 邑城과 너무 떨어져 있는것과 전체 風水形局으로 보아 右白虎가 약한것을 景觀要素의 設置를 통해 視覺的으로, 意味的으로 보완하려 했던것이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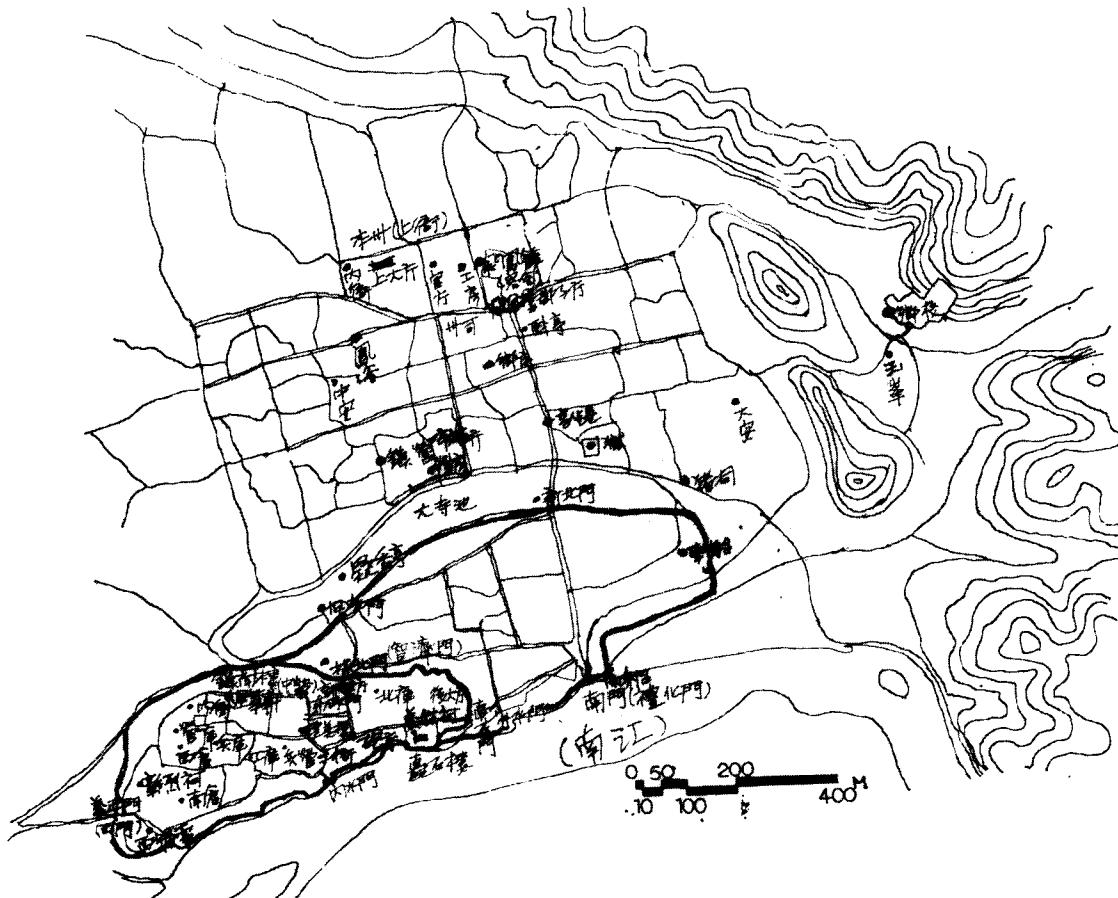
晋州의 邑城(사적 118호)은 일명 磐石城 혹은 晉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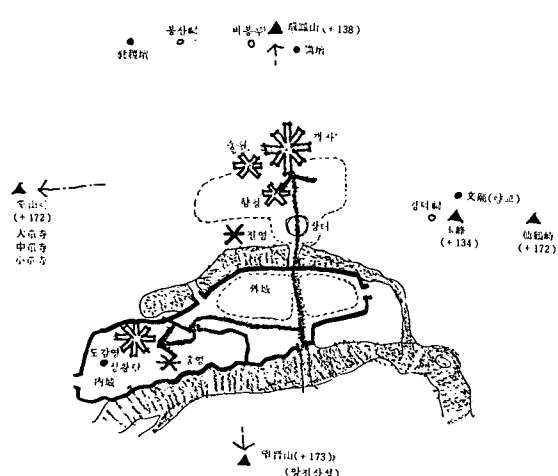
〈圖13〉 1920년대 진주의 실측도 -- 총독부 실시

城이라 불리며 이 城이 자리하고 있는곳은 萬景山이라 불리는 晉州고을 중 지세가 비교적 높은 돌출부로서 그 기원은 가야시대로 소급된다.(진주시; op. cit.p. 281) 晉州城은 內城(둘레 : 1930尺)과 外城(둘레 : 10, 330尺)으로 구성된 한국에서 보기드문 2重城郭의 형태로, 문헌과 이조시대의 각 지도를 참고하면 內城은 주로 防衛목적의 中營(慶尙右道 兵馬節度使營)과 한때 慶尙右道의 道觀察使(牧使겸임)營이 입지했으며, 外城은 內城 관아 소속의 官屬 및 그 가족과 진주일

대의 不在지주의 거처였음은 全州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다. 晉州牧은 이 內·外城領域과 그 北方의 城外지역을 都邑圈域으로 포함하는데 行政, 軍事用 목적의 公共施設은 이 內城과 外城의 各 地域에 분포되어 있어(客舍, 鄉廳, 本州, 및 鎮營은 城外입지) 求心의이기보다는 遠心의都市景觀을 보인다. 城은 東, 西, 南, 北 각 방향 四개의 문을 갖는데 (北 - 智齊門, 南 - 禮化門, 西 - 義正門, 東 - 新化門) 西門을 제외한 3개의 문은 外城에 설치되어 있고 內城과 外城의 접촉부에



&lt;圖14&gt; 조선왕조시대 진주목의 복원도.



&lt;圖15&gt; 진주목 경관체계 모식도

는 供北門과 真石門 2개소의 연결문이 있으며 그외에도 内·外城 각각 1개씩의 排水를 위한 水門이 있다.

주요동선은 이 각 성문들을 연결하는 체계를 이루는데 남강나루로 부터 성내와 성외를 연결하는 南門→北門→客舍의 도로가 도시의 幹線道路로서 廣幅의 直線道路인것을 제외하면 나머지의 도로는 地形 및 城廓의 形態에 따라 다소 不規則한 井田型의 형태인 것을 볼 수 있다.

주요한 都市施設 配置形態를 보면 内城내의 主 施設로는 運籌軒(宣化堂이라고도 함, 嶺南布政司; 관찰사영의 正門으로 현존), 訓練廳을 중심으로 한 中營(慶尙右道 兵馬節度使營) 건물들과 각 방위의 將台(北將台; 鎮南數, 현존; 南將台: 真石樓, 현존, 西將台, 현존, 東將台) 그리고 寺刹을 비롯한 宗教施設(護國寺 - 현존, 彰烈祠 - 현존, 城隍壇 등)이 주변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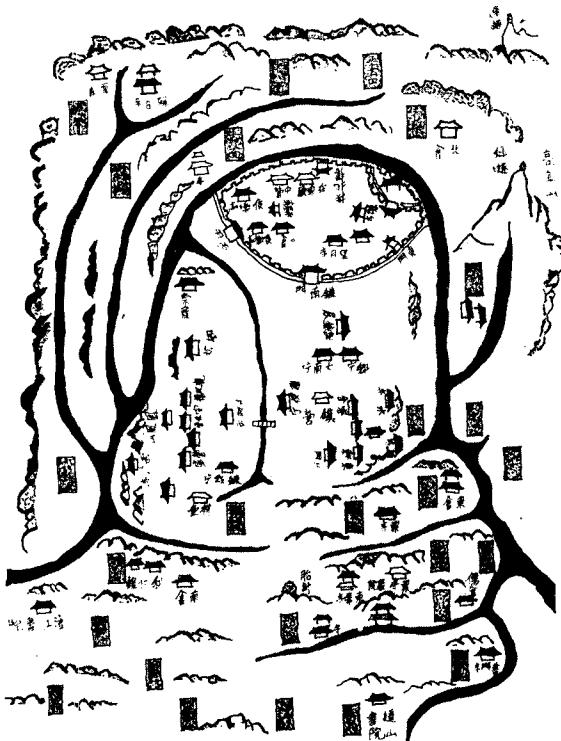
위치했던 것을 알수 있다. 城外의 行政 및 軍事 기타 시설들로는 먼저 主軸道路의 終局點에 設置되어 있어 있고, 本州(上衙라고도 표기: 長은 牧使이나 주로 判官이 집무하는 晉州牧自體의 行政官廳)가 객사를 右端으로 하여 立列配置되어 있으며 그 밑에 鄉廳이 설치되고, 이 主軸街路의 終端部에 해당되는 객사와 향청 부근에는 주축도로가 넓어져 廣場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데 이 부분에 紅 살문과 더불어 장터(場基)라고 표기된 공간이 있어 全體都市의 中心部에 장터가 입지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外城의 北門바깥 大寺池 바로 위에 鎮營(晋州牧의 守備軍營)이 立地하고 있으며 南江건너 望晋山에는 望晋山城과 烽燧臺가 설치되어 있다. 教育 및 宗教의 施設物로는 鄉校와 文廟가 州東側 玉峰건너 끌짜기에 입지하며, 城隍壇은 전술한 바와 같이 内城내의 西則에, 社稷壇은 州西五里의 大龍寺上에 厲壇은 北側 비봉산에, 析雨壇은 東側 玉峰에 설치됐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晋州의 3대 姓氏인 鄭氏의 河氏, 姜氏의 祭閣 및 祠堂은 주로 風水上의 四神과 더불어 외곽 境界에 위치하는데 飛鳳樓(鄭氏祭閣 - 飛鳳山에 위치), 凤山祠(姜氏祠堂, 祭閣 - 飛鳳山에 위치), 景德祠(河氏祭閣 - 玉峰에 위치) 등이 그것이며 이밖에 姜氏 門中이 만든 봉암자(上鳳西洞)도 門中을 象徵하는 紀念景觀物로 해석된다 (이상 경상남도; Op. cit., 진주시; op. cit. 晉陽誌, 신증 동국여지승람 참조)

이상 朝鮮王朝 時代의 晉州都邑景觀體系를 環境認識的 觀點에서 再解釋해 본다면 都市全體의 景觀構造는 주로 風水의 觀點에 의해支配되었다고 보여지며 1次的 視覺對象은 軍事的 機能이 우선하는 兵營都市로서의 晉州城郭이 우선하나 2次的 視覺對象이자 第1의 意味的 比重은 고을의 主山인 飛鳳山과 客舍건물, 그리고 이에 이르는 主軸道路에 의해 表現된다. 公共施設物의 分布로 본 晉州牧의 景觀體系는 單一 都市中心에 의한 求心的 景觀이라기 보다는 中心이 舊邑의 南과 北으로 분리되어 있는 遠心的 景觀體系를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바, 크게 보아 觀察府와 中營을 중심으로 하는 '內城'과, 客舍를 중심으로 한 '本州'의 2개의 中心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巨視的全體都市景觀에서 이들은 中心性과 더불어 구도시의南北領域을 상징하는 1次的境界要素로서도 機能한다고 보아, 都市全體의 實際的 中心은 전체 고을의 物理的 中心인 장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觀察府와 中營을 牧의 中心이라고 가정할 때 內城과 外城, 이에 부설된 各門과 將台 그리고 濟濠(大寺池)가 界界表現要素(Edge)라고 생각할 수 있는 反面, 客舍와 本州

를 中心이라고 가정할 때는 晉州城의 内城성곽과 참호 그리고 鎮營을 포함하는 시설들이 晉州牧 全體의 境界要素로 보는 觀點도 가능할 수 있다. 더욱 外延의 인 경제요소로서는 南江과 飛鳳山을 포함하는 風水四神을 들수 있으며 이러한 自然的境界要素는 各姓氏의 社會的 優越을 과시하는 祠堂建物들과 「봉알자리」 등의 人工景觀物에 의해 視覺的, 意味的으로 補完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더불어 각개의 宗教的 施設(文廟, 社稷壇, 城隍壇, 虧壇, 析雨察壇等)에 의해 意味的, 行爲的인 방법으로 이러한 풍수적 자연요소들에 의한 最外廓境界를 강조 했었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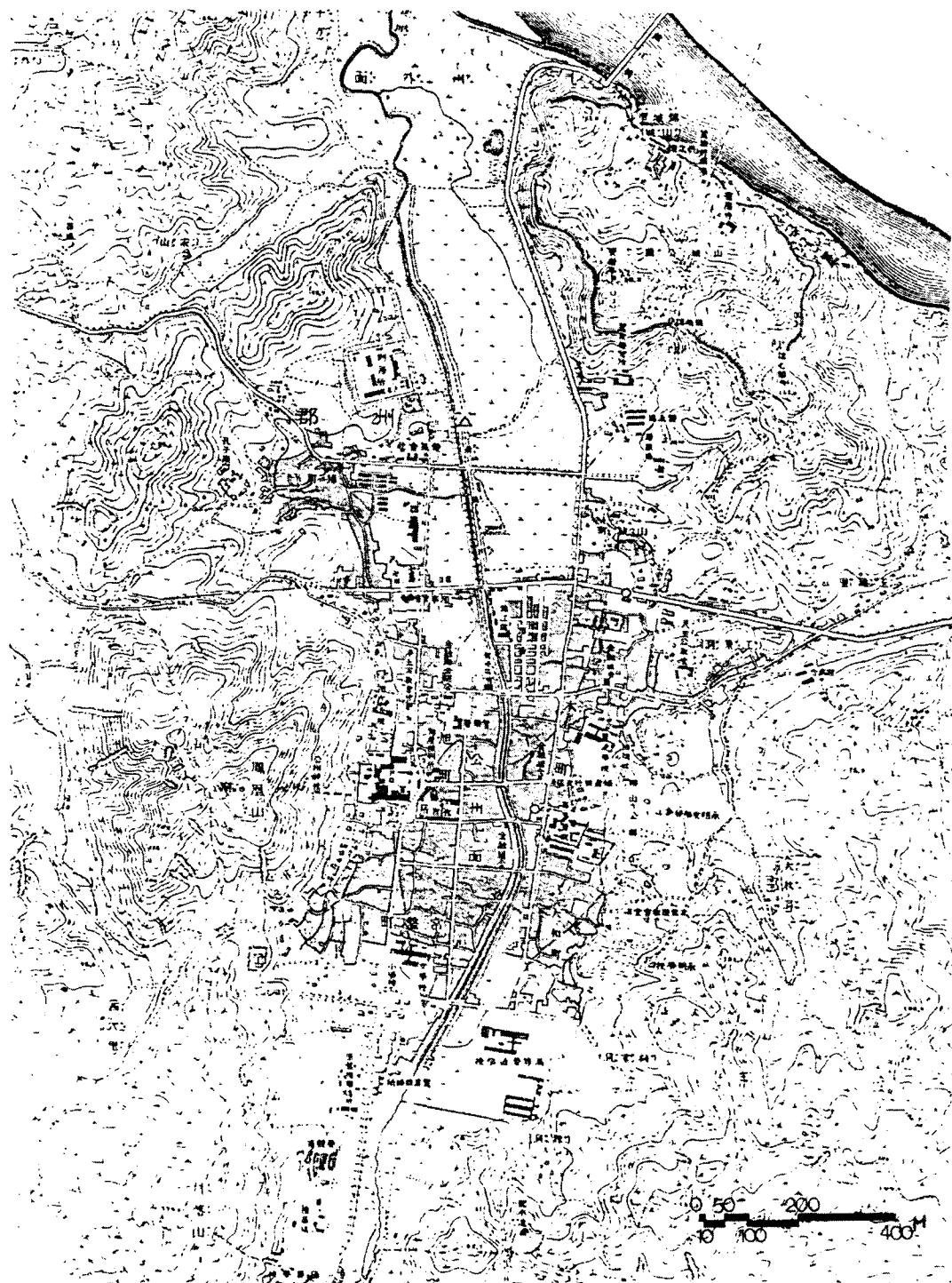
### 3) 公州牧의 都邑景觀體系

### (1) 對象地 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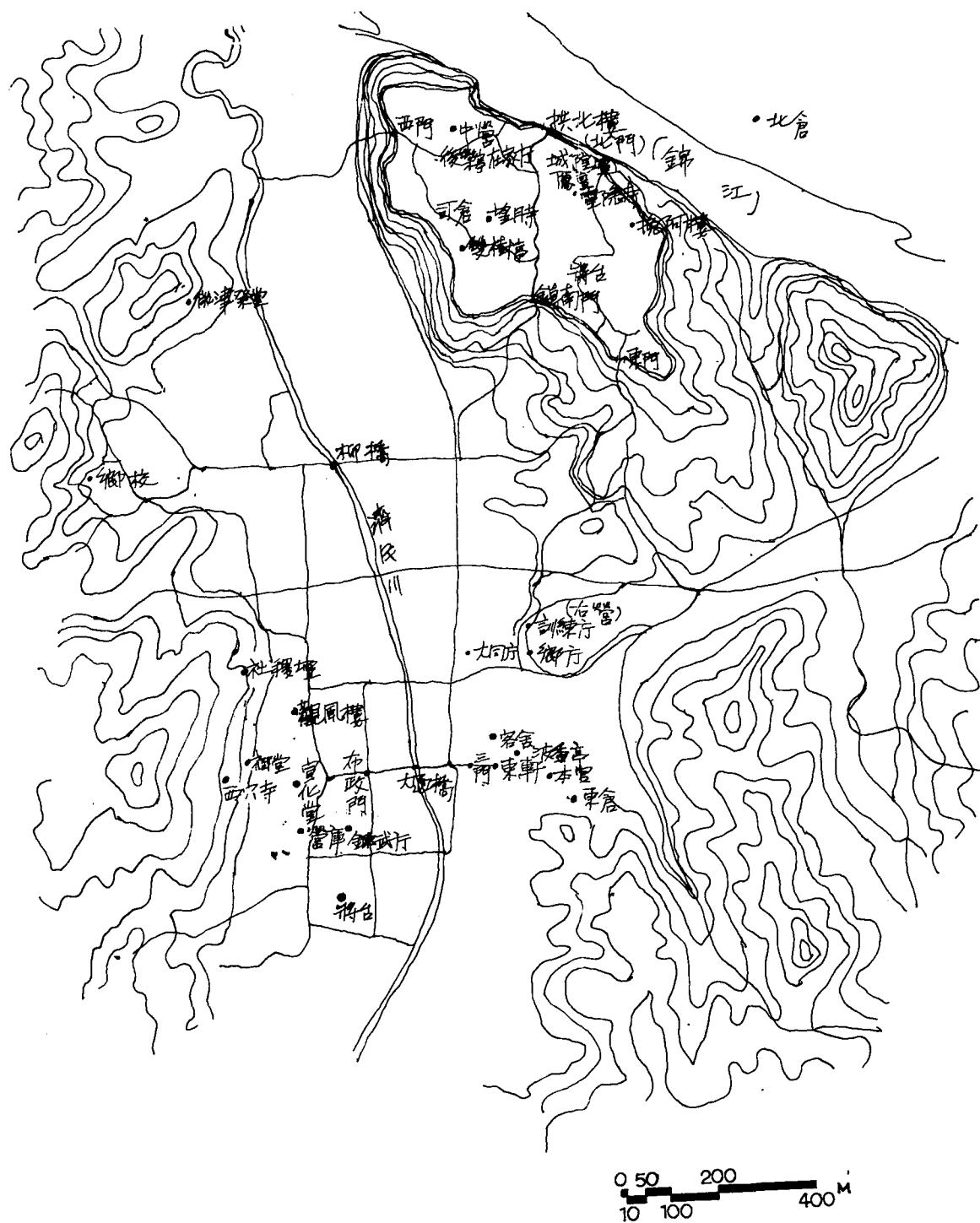


〈圖16〉 公州牧의 古地圖 - 邑誌 ; 1964, 아세아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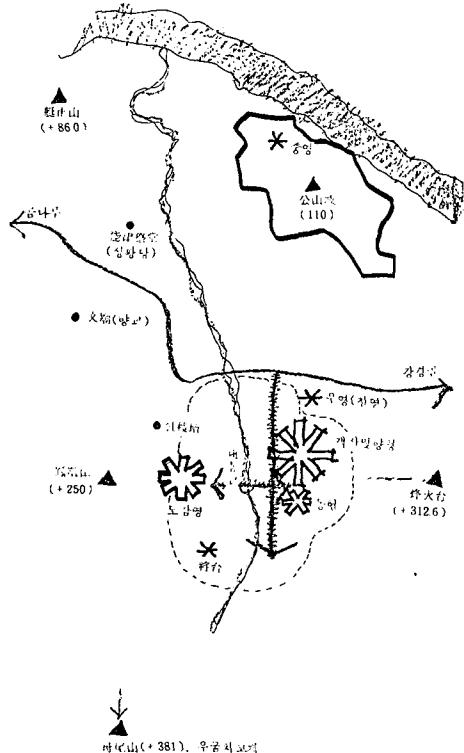
公州는 三國時代때 百濟의 熊川으로 불리다가, 文周王때 이곳으로 遷都하여 60년간 백제의 都邑地가 되었었다. 高麗 太祖32년(940) 現 지명인 “公州”로 개칭(現 公州의 北鎮山-公山城-의 地形이 “公”字와 흡사하다하여 붙이 이름), 都護府를 두었으며 李朝時



〈圖17〉 1920년대 공주의 실측도 – 총독부 실시



〈圖18〉 조선왕조시대 공주목의 복원도,



&lt;도19&gt; 공주목 경관체계 모식도

宣祖31년에 忠淸監營을 忠州에서 이곳 公州牧(牧使가 觀察使 겸임)으로 옮긴적이 있었다. 1895년 公州府가 되고 익년 13道를 두게 됨에 忠南의 道廳所在地가 되었고, 1928년 도청을 大田市로 이전결과 郡廳所在地로 승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설부 국립지리원; op. cit. p. 334, 나수승, 1976, p. 50, 손정목, 1974, p. 70)

公州는 地形上 北으로는 錦江과 公山城(110m), 船止山(86m), 西로는 凤凰山(250m), 東으로는 烽水臺(312.6m), 南으로 午禁고개와 舟尾山(381m)으로 에워싸인 盆地로서 예로부터 北쪽의 금강연안과 南쪽의 우금치 고개를 통하는 통로외에는 接近이 어려운 天然이 軍事的 要塞였다. (蘇在豪, 1979, p. 6) 그런 地形의 要因으로 하여 公州는 前產業社會의 다른 지방도시처럼 대규모의 邑城을 쌓을 필요는 없었으며, 평상시 忠淸道의 左營(지방군 사령부)이자 戰時에는 牧行政機關의 一時的 移轉場所로 使用했던 公山城을 防衛上 가장 脆弱地點인 錦江畔 입구에 設置하는 것으로 邑城을 代身한 드문 例의 都市이다.

## (2) 都邑景觀體系

公州의 北鎮山은 公山城이고 左青龍은 烽火臺, 右白

虎는 凤凰山, 案山이자 南朱雀은 舟尾山이며 外水는 錦江, 內水는 濟民川으로 말해지는데, 公山城과 公州의 명칭이 「公」字 즉 文字의 類推概念(Analogy)에 연유하는 것과 함께(公山城의 地形이 “公”字와 닮았다고), 전체의 고을 形局이 行舟形이기 때문에 특히 배의 具體的 形態와 관련된 類推概念의 地名이 많다. 즉 뱃머리에 해당하는 北西側의 山 이름은 “艇止山”, 南側의 山이 “舟尾山”이며 그곁에 “沙工岩”이 있고 (손정목; 1973, p. 88) 전체 邑 중앙에 大通寺地 幢竿支柱가 있는데 이 당간지주는 보통 行舟型 고을의 중앙에 「돛」의 類推物(塔, 당간지주, 巨樹 등 垂直的 要素)이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보면(박찬용; op. cit. pp. 33-34) 역시 風水의 “돛”的役割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公州의 地形은 일반적인 고을의 예와는 달리 北向의 골짜기로서 고을의 邑基가 北鎮山을 배경으로 立地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며 따라서 고을 中央部 西側에 가까이 위치한 凤凰山을 實際的 主山으로 하여 그를 背景으로 道감영 즉 宣化堂 建物群이 立地하고 그 左側에 鄉校와 社稷壇, 右側에 將台가 자리하며 그 맞은편 쪽으로 좌측의 東軒(本州에 해당하는 牧자체의 行政판아) 그리고 左側에 鎮營이 立地하는 마름모꼴의 中心 施設配置를 보이고 있다. 즉 고을의 中心은 道監營안 宣化堂과 客舍, 東軒의 行政施設地域이며, 그 외곽으로 北側은 中營인 公山城(의 부와의 주접근동선과 만나는 방위의 요충이므로 內, 外의 二重성과 형태로 되어있다)과 鎮營, 南쪽은 將台의 軍事施設이 가장 가까운 1次的 邑의境界를 形成한다. 2次的境界로는 風水四神의 자연지형과 더불어 宗教的 施設인 鄉校, 社稷壇, 熊津察壇(공주의 성황단격으로 곰나루에 가까운 艇止山 기슭에 위치)과 腹壇(公山城內)이 北쪽 外廓境界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공주군; 1981, pp. 20-32, 나수승; op. cit. p. 50) 道路網은 濟民川과 平행하게 형성된 從的 主軸道路에 宣化堂과 客舍를 연결시키는 橫的 主軸道路가 直交하는 十字形도로가 幹線道路가 되며 이에 平行한 副軸道路들이 格子型과 근사한 도로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 從·橫主軸道路가 만나는 中心의 濟民川邊에 舊邑時代의 行爲中心이었던 市場이 立地했다 한다. (蘇在豪, 1979, p. 14) 그 밖에 住民構成은 여러 都邑들과 마찬가지로 邑內는 衛前, 更屬(특히 班竹, 凤凰洞)과 서비스체증들이, 邑外는 兩班들이 (주로 講經閣-經書를 講한다는 뜻) 살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공주군; op. cit. p. 14) 고을의 규모가 적듯이 그 景觀體系도 다른 都邑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간결한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4. 結論 : 朝鮮王朝의 都邑景觀體系

前產業都市의 根本的인 特性을 함께 했던 朝鮮王朝의 都邑은 크게 그 시대를 지배했던 宗教내지 信仰體系의 規範인 “風水理論”이 都市立地와 都市領域의 自然的境界 즉, 外的景觀에 巨視的으로 作用했고, 都市內의 微視的 景觀 즉, “中心”, “境界”, “方向” 및 “領域”的 體系에는 “統治 및 社會構造”가 다분히 象徵의 인 方法을 통해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韓國傳統都市計劃에 있어서의 典範으로 삼았던 “周禮考工制”가 그러한 封建的인 社會構造의 物理的 表現基準으로 적용되었던 것 같다. 먼저 風水의 要因은 기본적인 風水四神에 의한 都市立地 및 領域決定의 風水說話 및 이의 보완책인 禅補, 壓勝 등의 기법을 통해 視覺的인 것 뿐만이 아닌, 意味의 關係로서 都市의 外的領域境界와 中心, 方位 등을 表現했다고 보여지며, 城內의 景觀에서도 주요시설의 배치 및 命名, 주거지 選好度 등에 부분적이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 “周禮考工制”상의 都市構成諸原則은 李朝時代 各都市의 獨自的文化, 地形, 機能, 都市位階에 따라 變形된 摘用의 例를 보이나, 國都에서 지방都邑 및 小邑에 이르기까지 都市內部의 “中心”, “境界”, “方位”, “領域”등 景觀體系에 어느정도 一貫性을 가질 수 있게 해 왔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두 가지의 社會, 文化的 規範에 의해 형성된 具體的인 都邑景觀의 物理的體系와 그에 부수되는 “意味”와 “行爲”는 각 都邑類型에 따른 變形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整理, 記述될 수 있다고 보인다.

1) 境界：都邑의 内의 領域의 境界와 도읍의 平面形態를 표현하는 물리적 요소인 城郭은 輿地圖書에 의한 分류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圓形에 가까운 不定形이) 首位를 이루고 (때에 따라 방어상 목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二重城郭의 형태도 있고 無城型 고을도 있다.) 그 다음으로 平地型인 方形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圓形이나 그 변형인 方形은 Jung등의 구조적原形(Archetype)과 그 대표적 사례로서의 “Mandala”와 形態上一致하기도 하며, 이 城郭과 이에 따르는 城門도 風水의 環境解釋에 영향을 받아 그 視覺的比重(Visual Weight; 주로 規模, 形態)과 意味的比重(Weight of Meaning; 주로 城門의 命名)을 동시에 表現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로 대변되는 内의 領域의 境界와 風水四神 또는 이에 중첩시킨 山城 등으로 대변되는 外의 領域의 사이에는 宗教, 文化的 인 시설(社稷壇, 厥壇, 城隍壇, 文廟 등 소위 3壇1廟)이

中間의 領域의 境界指標物(Makers of Boundary)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계지표물들의 성격은 전통마을에서의 인위적 상징물들과 마찬가지로 Edmund Leach가 말하는 “境界의 聖域化”를 表現한다고 볼 수 있다. (김한배; 1981, pp. 92-97)

2) 中心：都邑의 景觀的 中心役割을 했던 公共施設物群은 대부분 統治目的의 廉舍建物들로서 그種類와 量에 있어 小邑들과는 혐저한 차이를 보인다. 즉 小邑의 경우 “客舍”와 “東軒”, “鄉廳”이 都市內部 景觀指標의 3核을 이루나, 都邑의 경우는 이에 추가하여 “道監營施設(觀察府)”과 地域군사지휘본부인 “中營” 및 도시자체의 방위군사시설인 “鎮營”이 추가되는데, 이중에서도 보통 中央의 視覺的 촛점위치에 王權을 설정하는 客舍가 위치하고, 그 다음으로 道行政機關인 道監營과, 邑行政機關인 東軒이, 그 下位位階의 位置에 附屬官衙 및 軍事施設이 위치하는 “中心의 體系”를 이룬다. 이러한 客舍를 중심으로 하는 도읍의 廉舍群은 거의 전부가 도시의 물리적 中心에 위치하는 것을 물론 도시 전체의 高度規制를 통하여 도읍의 鎮山과 더불어 都邑의 垂直的 Skyline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이는 또한 대체로 風水局面의 “穴”과 일치하기도 함으로써 視覺的 比重과 함께 意味的 比重으로서의 中心性을 통해 統治構造의 權力과 正統性을 表現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中心”的 垂直性은 Schulz등에 의해 世界的인 現象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古代別邑인 蘇塗(솟터)에서의 “솟대”나 일반 전통마을에서의 堂木等과 함께, 定住地의 規模나 時代를 一貫하는 上方志向의 古代 宇宙觀 表現의 痕迹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김용옥; 1986, pp. 15-258)

3) 方向：都邑內의 通路 즉, 주요 도로체계는 “周禮”的 井田法을 기본으로 받아 들였으나, 도시의 규모상 대부분 東西方向과 南北方向으로 각 1개씩의 도로를 直交케 하였으며 (지형이 불규칙한 山地형 고을에서는 변형된 형태로 나타남), 실제적으로는 北쪽에 鎮山과 中心行政施設을 偏重配置시키는 관계로 北方의 도로는迂迴廻旋形式上의 것이 됨으로써 環境心理上根源的인 方位體系를 보여줄에 지나지 않고, 東西軸의 中心에서 南쪽으로 또 하나의 도로를 내는 T字形幹線道路가 一般型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중 主軸도로의 경우 (대부분 南北方向도로) 主端景건물(주로 客舍) 앞에서 屈折시켜 굽은 軸(Bent Axis)을 형성시키고 이 위에 象徵의 造形物(홍살문, 布政門, 功積碑等)이나 行爲據點(장터등)을 중첩시켜 視覺體驗上景觀의 漸進的理諭(Visual Sequence)과 防衛上의 목적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또한 主軸街路 左右의 建物

容積量을 비슷하게 하여 軸 左右의 視覺的 均衡(Visual Balance)을 이루게 하며, 左側(주로 西側)은 文班, 右側(주로 東側)은 武班의 廳舍를 입지시킴으로서 統治構造를 그대로 物理的 景觀에 反影케 하여 道路 左右의 意味的 比重(Weight of Meaning)을 같게 하기도 한다.

(4) 領域：또한 이러한 公共施設의 配置 및 주변의 居住分布는 그 領域性에 의해 封建時代의 社會構造를 可視的으로 表現하고 있는데, 巨視的인 領域의 境界는 城壁에 의해 城內와 城外의 住居地로 나뉘어지고, 微視的인 領域의 境界는 주로 전술한 道路體系에 의한다. 즉, 공공시설의 배치에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文班위주의 施設은 南北 主道路 西쪽에, 武班위주의 施設은 주로 東쪽에 배치되고, 그 官屬의 住居도 거의 이와 일치하며, “士, 農, 工, 商”의 社會序列에 따라 城廓內部 中心에는 官員 및 中人們의 주거가, 外廓쪽은 平民들의 주거가 형성되는데 그러한 同質集團의 영역내에서도 보다支配的인 위치에 있는 층은 주거 블럭의 안쪽에 그보다 신분이 낮은 계층일수록 보다 바깥쪽(도로쪽)에 위치하는 것을 볼수 있다. (박찬용.

### 〈朝鮮王朝時代의 都邑景觀體系〉

		景觀體系
1) 中心性 表現要素	· 行政의요소 ; 客舍→道監營→東軒→ 中營(風水上의 穴斗 明堂에 위치)	
2) 境界性 表現要素	· 內的 경계(求心的) 표현요소 ; 軍事의 요소(성곽, 山城, 將台) · 中位的 경계 표현요소 ; 宗教의요소 (때로는 風水地形에 위치 ; 3壇1廟, 各 姓氏의 祭閣) · 外的 경계(遠心的) 표현요소 ; 風水의 自然요소(山地, 河川)	
3) 方向性 表現要素	· 內的 방향 표현요소 ; 城內 주도로 패턴 斗 扉院(十字形, T字形) · 中位的 방향 표현요소 ; 各 方位의 城門(규모, 형태, 명칭) · 外的 방향 표현 요소 ; 各 方位의 風水地形	
4) 領域性 表現要素	· 內的 영역 ; 廐舍지구 - 大路에 의한 구분 中央(北) : 客舍, 正廳지구 東 : 武班 청사지구 西 : 文班 청사지구 · 中位的 영역 ; 城內住居지구 · 中, 小路 에 의해 구분 · 外的 영역 ; 城外住居지구 및 場市지구	

op. cit. p. 39) 성 밖으로는 각 城門 밖의 一時 또는 常時의 場市와 함께 商, 工계통의 住居群이 형성되어, 이모든 성 內, 外의 住居 및 活動領域들은 거의 垂直的 또는 同心圓的인 分布의 位階를 보인다고 할수있다.

이상과 같이 都邑의 物理的 景觀要素들은 要素別로 각기 別途의 “體系(Sytem)”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러한 각 “體系內” 또는 “體系間”에 作用하는 景觀要素들의 구체적 “形態”, “意味”, “行爲”들은 反復的, 重疊的으로 都邑景觀에 있어서의 前產業都市的 2大價值體系 즉, “宗教的 體系”와 “統治, 社會的 體系”를 表現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景觀體系를 表로 정리하면 앞의 표와 같다.

### 參 考 文 獻

- 1) 강대현, (1975), 도시지리학, 교학사
  - 2) 전설부, 국립지리원, 1982), 한국지명요함.
  - 3) 경상남도, (단기 4291) 경상남도지(中篇) 경상남도 도지 편찬위원회.
  - 4) 공주군, (1981), 공주의 山河
  - 5) 김용옥, (1986), 여자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통나무
  - 6) 김철수, 박병주, (1984, 6) “한국성곽도시의 구성 원리와 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19권 1호.
  - 7) 김한배, (1981), 문화경관적 상징성의 체계로 본 한국 전통마을의 경관구조, 서울대 환경대학원 T. M.
  - 8) 김형만, 김철수, (1982. 7) “한국성곽도시의 발전과 공간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17권 1호.
  - 9) 나수승, (1976), “공주읍의 지리적 연구”, 청주대학 논문집
  - 10) 박찬용, (1984, 6) “조선시대 읍성 정주지의 경관 구성 연구”, 한국 조경학회지 21호.
  - 11) 소재호, (1979) 공주읍의 도시지리연구. 고대 교육대학원 T. M.
  - 12) 손정목, (1973) “풍수지리설이 도읍형성에 미친 영향”, 도시문제 11호. 대한 지방 행정 공제회.
  - 13) 손정목, (1974. 4) “이조의 도시구성” 도시문제
  - 14) 손정목, (1977)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 일지사.
  - 15) 손정목, (1980. 4) “개항기 도시시설의 도입과정” 도시문제
  - 16) 송정희, (1961) “전주시의 발달”, 녹우회보 3호,

## 梨大師大

- 17)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0권(진주목)
- 18) 윤성주, (1985), 전주지방의 성곽에 관한 역사 지리학적 고찰 경희대 지리학과 T. M.
- 19) 윤시윤, (1984) “조선시대 지역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학회지 19권 1호.
- 20) 윤정섭, (1984), 도시계획사, 건우사
- 21) 이규목, (1982. 7) “도시경관의 구성이론에 관한 지각적 고찰” 대한국토학회지 19권 1호
- 22) 이상구, (1984) 조선중기 읍성에 관한 연구, 서울 대 토토학과 T. M.
- 23) 이상구, (1986. 5) “한국 읍성의 공간 구성체계”, 건축과 환경(월간) 86/5.
- 24) 전주시, (1983) 전주시史.
- 25) 전주시, (1986) 전주시 도시 문화환경조성 계획
- 26) 晋陽枝, 卷六, “晋州 邑誌 要撰, 上”
- 27) 진주시, (1983) 내고향의 전통, 진주시
- 28) 최병선, (1974) “한국 古 都邑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서울대 행정대학원.
- 29)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民音社.
- 30) E. Relph.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td.
- 31) E. Leach. 91976) Culture and Communication Cambridge Univ. press
- 32) K. Lynch ; (1981) A Theory of Good City Form, MIT Press
- 33) N. Schulz ;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역, 산업도서출판사, 1977)
- 34) Tuan, Yi-Fu ; (1974) Topophilia Prentice-Hall Inc.
- 35) Tuan, Yi-Fu ; (1977) Space and Place Univ. of Minnesota Press.